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요약(국문초록)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연구

최 보 람

본고의 목적은 경북 방언의 1음절 용언의 성조 실현 양상을 살펴 유형화하고, 이를 15세기 국어의 성조와 비교·대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지역어의 성조 실현 양상을 분석하여 경북 방언 1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형을 분류하였다.

중세국어의 1음절 용언 어간 성조형은 고정적 평성형, 고정적 거성형, 평거 교체형, 고정적 상성형, 상평 교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북 방언의 1음절 용언 어간 성조형은 고정적 고조형, 고저 교체형, 고정적 상승조형, 상고 교체형, 하강조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고정적'이 앞에 붙은 유형은 어간의 성조가 항상 평성·거성·상성, 또는 고조·상승조로만 나타나는 유형이고, '교체형'이 뒤에 붙은 유형은 후행어미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변동하는 유형이다. 이 중 하강조형과 상고 교체형의 하위분류인 RH∽HH형은 다른 성조형에서 유추되거나 음절의 축약으로 형성된 것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유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울진, 포항 지역어는 R 뒤에 항상 L만 올 수 있는 성조 배열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동해안 지역어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동해안 지역어에 속하지 않는 청송 지역어도 같은 성조 배열 제약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성조 측면에서 청송, 울진, 포항 지역어는 같은 방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세국어의 고정적 거성형, 고정적 상성형, 상평 교체형은 각각 경북 방언의 고정적 고조형, 고정적 상승조형과 상고 교체형에 대응하며, 고정적 평성형은 고저 교체형에 대응한다. 앞의 세 유형은 중세국어의 첫 거성이 한 음절 앞당겨진 위치에 경북 방언의 첫 고조가 대응한다는 일반적인 대응 원칙과 일치하지만, 뒤의

두 유형은 이러한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장 큰 원인은 선어말어미 ‘-더-’이다. 이는 강어미 중에서도 특이한 성조를 보이던 ‘-더-’가 다른 강어미 계열과 비슷한 방향으로 변한 것으로 보았다. 평거 교체형에 대응하는 경북 방언 어간들은 여러 가지 성조 실현 양상을 활용 패러다임 안에 모두 가진다.

유형별 대응에서 벗어나는 어휘들의 경우, 비슷한 음절 구조를 가진 다른 성조형에서의 유추나 어미의 특이한 성조가 원인이 된다. ‘비-(視)’와 ‘이-(蒼)’는 중세국어에서 고정적 상성형이나 경북 방언에서는 하강조형으로 나타나는 예로, 기원적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중세국어 ‘쏘-’나 ‘혀-(燈)’에 해당하는 경북 방언의 성조는 모두 고정적 고조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정적 거성형의 어간 초성이 자음군이거나 격음인 것에 유추되어 현대에 고정적 거성형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성조, 경북 방언, 성조배열제약, 성조 규칙, 방언 분화
학　번 : 2009-20009

차 례

〈국문초록〉 ---------- i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방법 및 대상 ---------- 3
1.3. 연구사 개관 ---------- 9

2. 중세국어의 용언 성조형 분류 ---------- 14
2.1. 중세국어의 용언 성조형 분류 방법 ---------- 14
2.2. 고정적 평성형 ---------- 16
2.3. 고정적 거성형 ---------- 16
2.4. 평거 교체형 ---------- 17
2.5. 상성형 ---------- 19
2.5.1. 고정적 상성형 ---------- 19
2.5.2. 상평 교체형 ---------- 19
2.6. 2음절 평성형 ---------- 20

3.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분류 ---------- 22
3.1.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분류 방법 ---------- 22
3.2. 고조형 ---------- 26
3.2.1. 고정적 고조형 ---------- 26
3.2.2. 고저 교체형 ---------- 31

3.3. 상승조형 ---- 34
3.3.1. 고정적 상승조형 ---- 34
3.3.2. 상고 교체형 ---- 35
3.4. 하강조형 ---- 37

4.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대응 ---- 41
4.1.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어절 성조 대응 ---- 41
4.1.1. 체언 성조의 대응 ---- 41
4.1.2. 용언 성조의 대응 ---- 48
4.2.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비교 ---- 50
4.2.1. 어절 성조의 대응과 일치하는 유형 ---- 51
4.2.2. 어절 성조형 대응과 일치하지 않는 유형 ---- 61

5. 결론 ---- 68
5.1. 요약 ---- 68
5.2. 남은 문제 ---- 70

참고문헌 ---- 72
Abstract ---- 83

표 차 례

〈표 1〉 15세기 간행 문헌 ---------- 8
〈표 2〉 대구 · 창원방언과 중세국어의 성조(김차균 1994ㄱ: 253) ---------- 11
〈표 3〉 방언 간 성조체계의 대응(박숙희 2008: 28) ---------- 11
〈표 4〉 Ramsey(1986: 185-6), 후쿠이 레이(2006: 3)의 중세국어 용언 어간 분류표 ---------- 15
〈표 5〉 경북방언의 1음절 용언 성조형 분류표 ---------- 40
〈표 6〉 '말'의 성조 대응 양상 ---------- 42
〈표 7〉 2음절 체언의 성조 대응 양상 ---------- 43
〈표 8〉 성조의 율동규칙(金星奎 1994ㄱ: 11) ---------- 45
〈표 9〉 체언 성조의 대응 ---------- 47
〈표 10〉 2음절 활용형의 성조 대응 양상 ---------- 48
〈표 11〉 3음절 활용형의 성조 대응 양상 ---------- 49

그 림 차 례

〈그림 1〉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 4
〈그림 2〉 경북지역어의 외곽선 지도(정철 1997: 210) ---------- 4

1. 서론

1.1. 연구 목적

방점 표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켜 온 중세국어의 성조는 현대 중부방언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음장을 통해 미미하게나마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1] 중세국어 문헌에서 성조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방점 또한 16세기 후반 문헌까지 나타나다가 17세기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대한민국학술원(1993)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에서 성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경상남북도 전역, 강원도 삼척·명주·영월, 함경남도 정평을 제외한 함경남북도 전역, 평안북도 후창 동부지역이다.[2] 이렇게 성조가 한반도에서 한정된 지역에만 나타나고 있음에도 성조지역의 언중은 어휘의 의미를 구별하는 데 있어 성조를 중요한 표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조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상대의 출신 지역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직접 조사하기 힘든 함경남북도 방언의 성조에 대해서는 전학석(1991), 郭忠求(1991ㄱ, ㄴ), 최명옥 외(2002) 등에서 논의한 바 있다. 지역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상남북도 방언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방언조사가 실시되어 그 결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중세국어 성조와의 비교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許雄(1955)을 필두로 한 이러한 논의들은 그 시초부터 중세국어와 동남방언의 성조를 비교하여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

1) 음장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는 김성규(2006) 참조.

2) 李基文 외(1991)에 따르면 성조방언에는 동남방언과 함경남도 영흥, 고원, 문천, 안변을 제외한 동북방언, 강원도 명주, 삼척, 영월지역어와 평안북도 후창의 동부지역어가 속한다. 전남방언의 운소가 예측 가능하므로 이 지역어를 성조언어 내지는 준성조언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본고의 목적은 현대 경상북도 방언의 용언 활용형 성조 실현 양상을 살펴 그 성조형을 분류하고, 이를 15세기 국어의 성조와 비교·대조하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방언은 경상남도와 달리 상승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3] 평성·거성·상성을 가지는 중세국어와의 대응을 보이기에 알맞다고 보았다. 또한 본고는 중세국어의 성조에서 경북방언의 성조를 도출하는 방식의 통시적인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공시적인 관점에서 시대를 한정하여 각 방언의 용언 활용형 성조 실현 양상을 파악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대응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용언 활용형을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형태소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용언 활용형이 해당 언어의 공시적인 관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1음절 용언 어간에 한정하되 한자어나 합성어는 배제할 것이다. 대상에 일부 2음절 어간이 포함되나, 이때의 2음절 어간은 1음절과 교체되어 나타나는 2음절 어간을 뜻하는 것이므로 실상 본고에서 다루는 용언 어간은 '1음절 용언 어간'으로 총칭할 수 있다. 다른 2음절 용언 어간은 파생어나 합성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어간 말음이 'ᄋᆞ/으'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平去의 성조를 가진다.[4]

이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는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장은 본고의 연구 목적과 대상,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서론이다. 2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용언 성조형을 분류하고, 3장에서 현대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을 분류·정리하여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으로 삼은 경북 6개 지역의 성조 분화를 간략하게 나타낼 것이다. 2장과 3장에서 분류한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성조형을 4장에서 비교·대조한다. 우선, 일반적인 성조형 대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언의 경우와 용언의 경우로 나누어 어절 성조형의 대응을 보인다. 중세국어와 현대 경북 방언의 성조는 모두

3) 경북방언이 상승조를 가진다는 것은 文孝根(1974)부터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단, 文孝根(1974), 金永萬(1986), 이동화(1990) 등은 저장조로, 崔明玉(1990,1999), 李赫和(1994), 김주원(1995) 등은 상승조로, 崔明玉(1990), 임석규(2003, 2007), 김세환(2005) 등은 저고복합조로 파악하였다.

4) 김성규(1998)에서는 파생어, 합성어로 추정되는 단어와 원래의 형태가 아닌 단어를 제외한 133개 어간의 성조 유형을 분류한 결과, 平去형의 어간이 77%에 달한다는 점을 밝혔다.

고저 액센트(pitch-accent) 체계로 볼 수 있으므로 성조형의 일반적인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절 성조형의 대응을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어절 성조형 대응을 기준으로 중세국어와 현대 경북 방언의 1음절 용언 어간 성조형을 대응시켜보면 이와 일치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후 4장에서는 이들의 성조형을 비교·대조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고에서 진행된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는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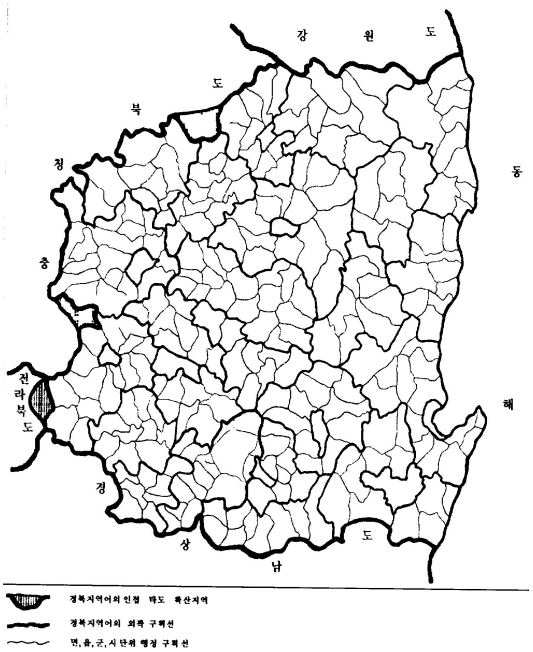
1.2. 연구 방법 및 대상

경북 방언의 성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전 지역에 걸쳐 직접 방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 전역의 방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지금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방언조사가 상당 수 이루어져 그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북 방언을 몇 개의 하위방언권으로 나누고 각 하위방언권의 대표 지역을 선정하여 이미 조사된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 지역이 '경상북도'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경북 방언'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 지역어의 경계를 정하는 일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쓰는 말은 '경북 방언'이라 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1>은 디지털 언어지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것이고, <그림 2>는 정철(1997)에서 경상북도의 경계가 되는 지역의 말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경북 방언의 외곽선을 지도에 그린 것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경계선과 경상북도 방언의 외곽선이 대체로 일치[5]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

5)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과 단양군 대강면,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그림 2>에서 빗금으로 표시된 지역)은 경북 방언의 확산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정철 1997: 199-209).

<그림 1>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그림 2> 경북지역어의 외곽선 지도
(정철 1997: 210)

북 방언의 경계는 행정구역의 경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구역은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물을 경계로 삼아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구역의 경계와 방언 경계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북 방언의 하위방언권 구획에 대한 논의는 千時權(1965)을 비롯하여 李基白(1969), 박지홍(1983), 崔明玉(1994), 정철(1997) 등에서 이루어졌다. 박지홍(1983)과 崔明玉(1994)은 경남 방언까지 아울러 동남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이며 千時權(1965), 李基白(1969), 정철(1997)은 경북 방언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이다.[6] 이 중 崔明玉(1994), 정철(1997)은 방언구획의 기준을 음운·어

6) 千時權(1965)에서는 음운, 어휘, 어법을 기준으로 조사한 후 의문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한 방언구획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경북 방언을 ① 대구·경주 중심 방언, ② 안동·의성 중심 방언, ③ 상주·선산 중심 방언으로 구획하였고, 박지홍(1983)에서도 어법('하십시오체'의 의문종결어미와 서술종결어미)을 중심으로 동남방언을 ① 상주 방언, ② 안동 방언, ③ 경주 방언, ④ 김해 방언, ⑤ 진주 방언으로 구획하였다. 이와 달리 李基白(1969)에서는 음운,

휘·어법 전반에 걸쳐 정하고 이를 통해 경북 방언의 하위방언권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두 논의에서 구획한 경북 방언의 하위방언권은 (1)과 같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7)]

(1) ㄱ. 崔明玉(1994)의 구분

- 경북 중동부 방언
  - 경북 중동동부 방언 : 울진, 봉화, 영풍, 예천, 안동, 영양, 의성, 청송, 영덕, 군위, 영천, 영일, 경산, 청도, 경주
  - 경북 중동서부 방언 : 칠곡, 성주, 고령, 달성
- 경북 서부 방언 : 문경, 상주, 선산, 금릉

ㄴ. 정철(1997)의 구분

- 동해안 지역어 : 경주(동해안 일부), 영덕, 영일, 울진
- 남부 지역어 : 칠곡, 성주, 고령, 달성, 청도, 경산, 영천, 경주(동해안 일부 제외), 군위
- 서부 지역어 : 금릉, 선산, 상주, 문경
- 북부 지역어 : 봉화, 영풍, 예천, 안동, 영양, 의성, 청송

(1ㄱ)의 '경북 서부 방언'과 (1ㄴ)의 '서부 지역어'가 정확하게 일치할 뿐, 나머지 구분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崔明玉(1994)에서 경북 중동부 방언을 다시 둘로 나눈 것에 비해 정철(1997)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을 셋으로 구분해 놓았다. 이러한 불일치는 각 논의에서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인 항목[8)]이 동일하지

어휘, 어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각 분야별 방언 구획의 결과를 제시하였을 뿐 이를 통합한 방언 구획은 실시하지 않았다.

7) 1995년 1월 1일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릉은 김천, 영일은 포항, 선산은 구미에 통합되었으며, 달성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이관되었다. 이하 본고에서는 해당 지역을 바뀐 행정구역명으로 부른다.

8) 崔明玉(1994)에서는 음운(음운목록, 어간의 재구조화, 음소변동, 음소변화, 성조유형), 어휘(수수, 여우, 파리, 부추, 쇠, 소꿉놀이, 제각기, 먹-[食], 가버리-[去了]), 어법(의문·서술 존칭 종결어미, 조건·이유 표시 연결어미)을, 정철(1997)에서는 음운('어:으', '에:애', 'ㅅ:ㅆ'의 변별), 어휘('변소, 병아리, 여우, 간장, 무, 부엌, 형, 누이, 오빠, 도련님, 삼촌, 아재'), 어법

않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에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나열하면 (2)와 같다.

(2) ㄱ. 경북 중동동부 방언 ~ 동해안 지역어 : 울진, 영덕, 포항(영일), 경주(동해안)
ㄴ. 경북 중동동부 방언 ~ 남부 지역어 : 청도, 경산, 영천, 경주, 군위
ㄷ. 경북 중동동부 방언 ~ 북부 지역어 : 봉화, 영풍, 예천, 안동, 영양, 의성, 청송
ㄹ. 경북 중동서부 방언 ~ 남부 지역어 : 칠곡, 성주, 고령, 대구(달성)

이에 본고에서는 (1)의 구분에서 일치점을 보인 경북 서부 방언(서부 지역어) 외에 (2)를 참고하여 (2ㄱ-ㄹ)에서 각각 한 지역씩을 선정하였다. 단, (2ㄱ)에서는 울진이 과거 강원도에 속해 있었다는 특수성[9]을 고려하여 울진을 포함한 두 지역을 택하였다. 조사 시점이 가장 최근인 자료를 우선시하여 본고에서 주로 다룰 용언 활용의 패러다임을 되도록 많이 제시한 자료를 고른 결과, (3)과 같이 대상 지역을 정하였다. 필요한 경우 ≪韓國方言資料集 Ⅶ≫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직접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의 제보자 정보를 (4)에 제시한다.

(3) 대상 지역(조사년도)
ㄱ. 경북 중동동부 방언 ~ 동해안 지역어 : 울진(2006), 포항(2001)
ㄴ. 경북 중동동부 방언 ~ 남부 지역어 : 경주(2005)
ㄷ. 경북 중동동부 방언 ~ 북부 지역어 : 청송(2002, 2004)
ㄹ. 경북 중동서부 방언 ~ 남부 지역어 : 대구(1993, 1994, 2012)[10]
ㅁ. 경북 서부 방언 / 서부 지역어 : 문경(2004)

(의문, 명령, 청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9) 울진은 196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10) 대구 방언을 기술한 김차균(1994ㄴ)은 대구시 중구에 거주하는 제보자의 성조를 조사하였기에 1995년 대구시가 된 달성군과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달성군을 대상으로 한 최근 논의를 찾지 못하였기에 포함시켰다. 또한 김차균(1994ㄴ)에서는 각각 1931년, 1935년생인 제보자 둘 이외에도 1974년생인 제보자 하나를 더 선정, 조사하여 자료에서 구분해 제시한 바 있다.

(4) 제보자 정보

ㄱ. 경주 : 이봉우(남, 77세), 권구만(남, 82세), 이옥선(여, 82세), 정여탁(남, 79세)

ㄴ. 대구 : 추기수(남, 82세, 대구광역시 중구), 홍종숙(여, 78세, 대구광역시 중구), 이장희(여, 39세, 대구광역시 북구)[11], 김정옥(여, 81세, 대구광역시 북구), 금선자(여, 51세, 대구광역시 북구)[12]

ㄷ. 문경 : 강용기(여, 86세, 가은읍 죽문리), 손영순(여, 78세, 점촌 공평동)[13], 황순동(여, 90세, 문경읍 팔녕리)

ㄹ. 청송[14] : 류분경(여, 77세, 청송군 부동면), 홍옥선(여, 99세, 청송군 부동면), 김학사(남, 77세, 청송군 부동면)

ㅁ. 울진 : 오시관(여, 92세, 울진읍 온양리), 남종우(남, 91세, 북면 고목리)

ㅂ. 포항 : 박영모(남, 83세, 포항시 북구), 황진철(남, 92세, 포항시 북구)

(5) 방언 자료 출처[15]

ㄱ. 경주 : 최명옥・김주석(2007), 최명옥(2008)

ㄴ. 대구 : 김차균(1994ㄱ, ㄴ), 박숙희(1999)[16]

ㄷ. 문경・울진 : 林錫圭(2007)

ㄹ. 청송 : 김세환(2005, 2012)

ㅁ. 포항 : 박숙희(2005)

---

11) 이 제보자의 자료는 본고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12) 마지막에 제시된 두 제보자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분들이다. 가장 마지막에 제시한 제보자는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16세 때 대구로 온 후 현재까지 줄곧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 대구 태생은 아니나 대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성조 조사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3) 주로 성조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이다(林錫圭 2007: 6).

14) 김세환(2005: 4)에서는 첫 번째 제보자를 주제보자, 나머지 제보자를 보조제보자로 선정하였다.

15) 방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미흡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다면 자료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필자의 잘못이다.

16) 김차균(1994ㄴ)을 주 자료로, 김차균(1994ㄱ)과 박숙희(1999)를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조사도 행하였다.

중세국어의 성조 실현 양상은 문헌에 나타난 방점표기를 통하여 살펴본다. 16세기 들어 지방 문헌을 중심으로 방점 표기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므로 본고의 논의 대상은 정제된 방점표기를 보이는 15세기, 그중에서도 제1기(요람기, 1443~1469)[17]의 문헌에 한정한다. 문헌의 구체적인 목록과 간행 연대 및 약호는 <표 1>과 같다.

문헌	연대	약호
<訓民正音 解例本>	1446	해례
<龍飛御天歌>	1447	용비
<釋譜詳節>	1447	석보
<月印千江之曲>	1447	월인
<訓民正音 諺解本>	1459	훈민
<月印釋譜>	1459	월석
<楞嚴經諺解>	1462	능엄
<法華經諺解>	1463	법화
<金剛經諺解>	1464	금강
<圓覺經諺解>	1465	원각
<牧牛子修心訣>	1467	목우자
<蒙山法語諺解>	1467	몽법

<표 1> 15세기 간행 문헌

17) 이호권(2008)에서는 최현배(1961)를 바탕으로 각 시기에 배당되는 기간과 한글 문헌 간행의 질·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선시대 한글 간행 문헌의 시기 구분을 제1~5기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 논하였다. 이호권(2008)의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기(요람기) : 훈민정음 창제 ~ 예종 (1443~1469년)
제2기(성장기) : 성종 ~ 임진왜란 직전 (1470~1592년)
제3기(변동기) : 임진왜란 ~ 경종 (1592~1724년)
제4기(융성기) : 영조 ~ 정조 (1725~1800년)
제5기(변혁기) : 순조 ~ 갑오경장 (1801~1894년)

이와 같이 본고의 연구 대상은 15세기 국어(이하 '중세국어')와 현대 경북 방언(이하 '경북 방언')이므로, 두 대상의 성조 표기를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세국어의 성조를 '平(평성)', '去(거성)', '上(상성)'으로 적고, 경북 방언의 성조를 'L(low tone, 저조)', 'H(high tone, 고조)', 'R(rising tone, 상승조)', 'F(falling tone, 하강조)'로 적는다.

1.3. 연구사 개관

성조가 음장으로 대체되거나 자취를 감춘 지역과 다르게 동남방언에서 여전히 변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小倉進平(1924)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에 성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18] 한 이후, 許雄(1955)에 이르러 경남 김해 지역어의 성조와 중세어의 성조가 체계적인 대응을 보인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중세국어의 성조와 동남방언의 성조를 연관 짓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중세국어와 동남방언 성조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 성과물을 크게 성조론과 악센트론의 관점으로

18) 小倉進平(1924)에서는 음운, 어법, 어휘에 걸쳐 한반도 남부지역의 방언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대상으로 삼은 지역 중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경북의 대구, 김천, 지예(知禮, 현재는 안동), 상주, 함창, 문경, 예천, 영주, 안동, 의성, 청송, 영덕, 흥해(興海, 현재는 포항), 포항, 경주, 영천과 경남의 울산, 동래, 부산, 김해, 밀양, 창녕, 합천, 거창, 마산, 거제, 통영, 진주, 하동, 동해가 있다. 이 논의의 1장 음운편의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慶尙南北道地方の朝鮮語に文アクセント(Sentence-accent)卽ち語調の高低顯著なることは何人も容易に認め得る所である。此のアクセントの研究は方言調査上最も困難を感ずる所で、余も未だ十分の目的を達することを得ねのであるが、要するに同地方に於ける此の種のアクセントは毎音節の初の部分に力を置き、卽ち頭上りの調子を以て談話を繼續し行くのである。而して其の分布の狀態を見るに慶尙南北兩道の全部及び江原道注文津以南を以て最も顯著なる地方とする。而して其の影響の及び所は全羅南道一圓であるが、該地方に於けるアクセントは慶尙南北道に於けるもの程顯著ならず、唯南方海岸に面し慶南地方と比較的交通の頻繁なる高興・筏橋・寶城・長城地方が慶尙道と同程度に於て著しきを発見するのである。忠淸南北道・全羅北道の全部、江原道襄陽以北にありては此のアクセントが認められず、京城地方と大差なきは注意するに足る現象である。(小倉進平 1924: 47-48)"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許雄(1955)은 경남 김해 지역어를 중세국어 성조와 대응시켜 중세국어의 평성은 김해 지역어의 고조에, 거성은 중조에, 상성은 저조에 규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밝힌 논의이다. 이 대응은 1음절 체언의 성조형을 대상으로 보인 것이다. 2음절 이상이 되면 부분적으로 대응 양상이 달라지나, 이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許雄(1955)은 성조의 대응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의이면서도 파생·굴절 과정에서의 성조 실현 양상이나 문장 단위에서의 성조 실현 등을 상세히 다루어 성조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약 5세기의 시간을 두고 중세국어와 동남방언은 평성과 고조, 거성과 중조, 상성과 저조로 정반대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대응을 보이고 있어 의문이 남는다. 許雄(1955)에서는 이러한 대응 관계의 원인으로 중세국어 시기에도 방언차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김차균(1979)의 논의에서는 중세국어와 동남방언의 상성과 거성 뒤에서 성조의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상성과 거성, 즉 평성이 아닌 것들을 '측성(仄聲)'이라고 총칭한다. 이 논의에서 경상도 방언의 '상성'과 '거성'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낮게 시작하여 높아지는 소리'와 '높은 소리'가 아닌, 중세국어의 상성과 거성에 대응하는 성조형을 뜻한다. 김차균(1979 이후)의 논의에서 이러한 성조 분석 방법과 표기법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논의들에서는 중세국어의 성조 표기 방식인 방점법을 받아들여 방언 성조의 표기에 적용하였다. 이때의 '방점'은 표면형에서 나타나는 음조를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측성법에 따라 변별성이 있는 음조를 가진 음절에만 점을 표시한 형태를 말한다. 김차균(1994ㄴ)에서 정리한 경북(대구), 경남(창원) 지역어와 중세국어의 성조 대응은 <표 2>와 같다.

성조의 이름		대구	창원	중세 국어
평성		고 /H/	고 /H/	가장 낮은 음조 /L/[L]
측성	거성	저 /M/	중 /M/	가장 높은 음조 /H/[H]
	상성	저: /M:/	저 /L/	높아 가는 음조 /R/[l^h]

<표 2> 대구・창원방언과 중세국어의 성조(김차균 1994ㄴ: 253)

박숙희(2008)는 이러한 김차균(1979 이후)의 논의를 받아들여 경북 동해안 방언에 적용시킨 연구이다. 이 논의에서는 김차균(1979 이후)과 마찬가지로 복합조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저장조 혹은 고장조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표 3>과 같은 대응표를 제시하였다.

	중세국어	경남방언	경북$_1$방언	경북$_2$방언	영동$_1$방언	영동$_2$방언	함경방언
평성	저	고	고	고	고	고	저
거성	고	저	저	저	저	저	고
상성	승	더 낮은 저	저:	고:	승	고:	

<표 3> 방언 간 성조체계의 대응(박숙희 2008: 28)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들을 크게 성조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는 중세국어의 성조와 방언 성조가 정연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김차균(1979 이후)이나 박숙희(2008)는 표기법으로 방점법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대응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조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許雄(1955)에서 언급한 대로 각 방언에서 성조의 대응이 어째서 저토록 다르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자면 許雄(1955)의 논의에서처럼 방언차로 해석하는 것이 최선일 듯하다.

악센트론에 속하는 논의들은 한국어 방언 성조가 어절 단위에 부과되고 특히 어절의 특정 음절에 얹히는 성조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주목한 연구이다. 이

중 Ramsey(1974)는 許雄(1955)에서 조사한 김해지역어의 성조에 함남 북청지역어의 성조를 함께 살핌으로써 중세국어에서 현대 방언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 논의이다. Ramsey(1974)에 따르면 중세국어의 성조와 더 가까운 쪽은 북청지역어로, 김해지역어의 성조는 북청지역어에서 악센트가 한 칸씩 당겨진 듯한 양상을 보인다. Ramsey(1974 이후)는 이를 '액센트 추이 규칙[19]'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김주원(1991 이후)은 성조가 쉬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성격의 운소가 아님에도 許雄(1955) 등의 기간 논의에서 중세국어의 평성이 동남방언의 고조에 대응하는 등 정반대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남방언의 어절 성조형에 주목한 논의이다. 특히 김주원(1995)에서는 'ᄆᆞᆺ노ᄑᆞᆫ 소리'의 'ᄆᆞᆺ'을 '바ᄅᆞ'로 보아 중세국어의 'ᄆᆞᆺ노ᄑᆞᆫ 소리'와 동남방언의 '가장 높은 소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중세국어의 거성불연삼(去聲不連三) 규칙을 고려하여 동남방언의 어절 성조형을 0형(가장 높은 소리를 포함하는 성조형), Ⅰ형(고조로 시작하는 성조형), Ⅱ형(저조로 시작하는 성조형)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어절 성조형은 각각 0형이 중세국어의 평성형에, Ⅰ형이 거성형에, Ⅱ형이 상성형에 대응한다. 이 중 0형의 가장 높은 소리는 중세국어에 없었던 유형으로 새로 생겨난 것이다. 또한 Ⅱ형은 경북 방언에서는 첫음절이 상승조로 실현되며 경남 방언에서는 저조로 실현되어 이들 성조가 지역에 따라 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주원(1995)의 논의에 따르면 동남방언에서 평성은 저조와 고조, 거성은 고조, 상성은 저조에 대응하므로 기간 논의에서 격변한 것처럼 보인 중세국어와 동남방언의 성조는 사실 그 사이에 부분적인 변화만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성조 방언의 분화 양상을 살펴본 김주원(2000)에서는 중세국어의 성조에 '최후 고조의 저조화'와 '예기 발음', '성조 탈락' 규칙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현대 방언으로 분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악센트론에 속하는 논의들은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이 모두 어절 단위에 성조가 얹히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여 중세국어에서 경북 방언으로의 변화를 성

19) '액센트 추이 규칙'에 대해서는 4.1.에서 살펴본다.

조론에 비해 비교적 설득력 있게 설명해내었다. 하지만 이들 논의가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 성조형의 공통점에 주목한 만큼, 대응 관계에서 벗어난 예들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양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것에는 다소 소홀했던 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1음절 용언 성조형을 대응하여 어절 성조형의 일반적인 대응과 일치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어간을 나누어 설명하고, 경북 방언을 종합적으로 살핌으로써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 성조의 전체적인 대응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2. 중세국어의 용언 성조형 분류

2.1. 중세국어의 용언 성조형 분류 방법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비교 대상이 되는 중세국어 1음절 용언의 성조형에 대해 간략하게 논하기로 한다. 중세국어의 1음절 용언 성조형에 대한 논의로는 용언 활용 전반을 다룬 李崇寧(1964)을 비롯하여 鄭然燦(1976), 金完鎭(1973), Ramsey(1986, 1991), 崔桂英(2007) 등이 있다.

李崇寧(1964)에서는 1음절 어간의 성조를 O형(평성형), V형(거성형), W형(상성형)[20]으로 나누어 살피면서 어간 음절 구조와 성조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鄭然燦(1976) 역시 1음절 용언 어간 중 무성자음으로 끝나는 것들이 평성을 가지고 있어 어간의 말음과 성조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의 중 Ramsey(1986)는 중세국어 어간의 성조와 음운 형태를 기준으로 어간을 <표 4>와 같이 분류하였다. 어간의 음절 구조와 성조를 모두 고려한 분류라는 점에서 이후 본고에서는 아래의 <표 4>[21]를 기본으로 하여 중세국어의 용언 성조형을 다룬다.

---

20) 李崇寧(1964)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방점을 표기하기 위해 음절 위에 'V'를 표시하고 있다. 평성(□)은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고 거성(·□)은 음절 위에 V를 하나, 상성(:□)은 V를 두 개 표시한다. 'O, V, W'는 음소 표기 없이 성조만 언급하는 경우 평성, 거성, 상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21) <표 4>는 Ramsey(1986, 1991)을 바탕으로 후쿠이 레이(2006)에서 정리한 것이다. 활용형 용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성조를 가진 다른 용언 어간으로 대체되어 있다. <표 4>에서 제시한 1음절 어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Class 1 : 먹-, 잡-, Class 2 : 보-, ᄒᆞ-, Class 3·4 : 숨-, 크-, ᄭᅮ-, Class 5 : 없-, Class 6 : 알-, Class 7 : 늏-, 빟-, 짛-, 듣-, Class 8 : 오ᄅᆞ-

	Class 1 (먹-)	Class 2 (숨-)	Class 3·4 (보-)	Class 5 (없-)	Class 6 (알-)	Class 7 (눕-)	Class 8 (오ᄅᆞ-)
-고	먹고 [平去]	숨고 [去○]	보고 [平去]	업고 [上○]	알오 [上○]	눕고 [平去]	오ᄅᆞ고 [平平去]
-(ᄋᆞ/으)며	머그며 [平去○[22]]	수므며 [去○]	보며 [平去]	업스며 [上○]	알며 [上○]	누ᄇᆞ며 [平平去]	오ᄅᆞ며 [平平去]
-(ᄋᆞ/으)이-		ᄀᆞ이다 [去-]	ᄒᆞ이다 [平平去]	업스이다 [上-]		*平平平-	*平平平-
-오/우-	머구- [平去]	수무- [去-]	보- [上-]	업수- [上-]	아로 [平去-]	누ᄇᆞ- [平去-]	올오- [平去-]
-아/어	머거 [平去]	수머 [去○]	보아 [去○]	업서 [上○]	아라 [平去]	누ᄫᅥ [平去]	올아 [平去]
-(ᄋᆞ/으)시-	자ᄇᆞ시- [平平去-]	수므시- [去-]	보시- [去-]	업스시- [上-]	아ᄅᆞ시- [上-]	누ᄇᆞ시- [平平去-]	오ᄅᆞ시- [平平去-]
-더-	먹더- [平去]	숨더- [去-]	보더- [去-]	업더- [上-]	아더- [上-]	비터 [平去-]	오ᄅᆞ더- [平平去-]
-ᄂᆞ-	먹ᄂᆞ- [平平]	숨ᄂᆞ- [去-]	보ᄂᆞ- [去-]	업ᄂᆞ- [上-]	아ᄂᆞ- [上-]	짇ᄂᆞ- [平平-]	오ᄅᆞᄂᆞ- [平平平-]
-거-	먹거- [平平]	숨거- [去-]	보거- [去-]	업거- [上-]	알어- [上-]	눕거- [平平-]	오ᄅᆞ거- [平平平-]
-ᄉᆞᆯ-	받ᄌᆞ바 [平平去]	드ᅀᅡ [平去平]	보ᄉᆞᆸ고 [去-]	얻ᄌᆞ바 [上-]	아ᄉᆞᆸ고 [上-]	듣ᄌᆞ바 [平平去]	이르ᅀᅡ [平平平去]
-다가	먹다가 [平平去]	쑤다가 [去-]	보다가 [去-]	업다가 [上-]	아다가 [上-]	듣다가 [平平去]	오ᄅᆞ다가 [平平平去]

<표 4> Ramsey(1986: 185-6), 후쿠이 레이(2006: 3)의 중세국어 용언 어간 분류표

<표 4>에서의 Class 1-8은 임의적 명칭으로, 성조 실현 양상을 나타내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유형별 성조 실현 양상과 어간의 목록을 제시한 이하의 논의에서는 성조 실현 양상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고정적 평성형', '평거 교체형'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22) 중세국어에서는 한 기식군 안에 첫 거성이 등장하면 나머지 성조가 율동규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표에서 '○'로 표시된 성조는 율동규칙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성조를 표시한 것이다. 중세국어 성조의 율동규칙은 <표 8>에 제시된다.

2.2. 고정적 평성형

<표 4>의 Class 1은 첫음절이 평성으로 나타나는 어간으로, '-고' 등의 어미와 결합할 때 '먹고[平去] <석상 9:22b>, 머그며[平去去] <월석 23:79a>'와 같이 둘째음절이 거성이 된다. 어간의 성조가 고정적으로 평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Class 1에 속하는 용언을 金完鎭(1973)과 같이 '고정적 평성'이라고 일컫는다. 고정적 평성 어간에는 자음(군)이나 반모음 j로 끝나는 어간들이 속해 있다.

(1) 고정적 평성형[23] : 갉-(削), 갚-(報), 겪-(折), 걷-(收), 곧-(直), 곱-(曲), 곶-(揷), 굳-(硬), 낛-(釣), 녹-(溶), 늙-(老), 늦-(遲), 닉-(熟), 닑-(讀), 닙-(着), 닞-(忘), 놀-(飛), 닫-(閉), 들-(擧), 막-(防), 밍-(結), 먹-(食), 묻-(埋), 믈-(咬), 믿-(信), 맑-(淸), 벗-(脫), 븥-(附), 붉-(明), 뿌-(躍), 쁘-(視), 뻐-(被包), 석-(腐), 섞-(雜), 솟-(聳), 앓-(痛), 잃-(失), 잡-(捕), 좁-(狹), 좇-(追), 죽-(死), 즐-(泥), 흩-(散) 등

2.3. 고정적 거성형

Class 2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간의 첫음절이 거성으로 실현되는 고정적 거성 어간이다. 대개 어두자음군이나 격음이 어간의 초성이며, 어간 말음은 모음인 경우가 많다. 고정적 거성형에 속하는 어간의 첫음절 초성과 성조의 관련성에 대하여 李崇寧(1964), 李基文(1972/1977)[24], Ramsey(1986) 등에서 지적한 바 있

23) 어간의 목록은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제시한다. 괄호 안에 해당 어간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었으나, 적절한 한자가 없는 경우 주어, 목적어 등 의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장성분을 대신 제시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목록은 Ramsey(1986, 1991)과 崔桂英(2007)을 참고하되, <표 1>의 문헌에서 해당 어간 활용형의 방점을 직접 확인하여 일부 깁고 보태었다.

24) <계림유사(鷄林類事)>에서 '쌀(米)'를 '菩薩'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다. 이들 논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음 사이의 모음탈락을 경음과 어두자음군이 생겨난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Ramsey(1986)는 고정적 거성형에 속하는 어간이 대개 'ᄋᆞ/으'모음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탈락한 모음 또한 'ᄋᆞ/으'일 것이라고 보았다. 고정적 거성 어간의 목록은 (2)와 같다.

(2) 고정적 거성형 : 골-(摩), 들-(入), 둘-(掛), 뷔-(切), 띄-(蒸), 밧-(包/泄), 쁘-(用), 뼈-(介), 쁘-(입술이), 뿌-(乘/樂), 술-(燒), 슬-(消), 소-(索), 수-(借/夢), 쓰-(滅), 잘-(席), 씨-(覺), 앉-(坐), 싀-(漏), 숨-(隱), 쓰-(書), 옳-(是), 좋-(淨), 츠-(寒/蹴/滿), 춤-(忍), 춪-(探), 츠-(舞), 티-(打), 칩-(寒), 크-(大), 트-(燃/受/昇), 프-(開花/汲), 프-(掘), 풀-(賣), 히-[25](白) 등

2.4. 평거 교체형

<표 4>의 Class 3과 Class 4는 약어미 앞에서 '보고[平去] <석상 6:14a>, 보아[去去] <석상 19:7b>'와 같이 평성 또는 거성으로 실현되는 평거 교체형 어간이다. 이때 어간을 평성으로 실현시키는 어미를 약어미, 거성으로 실현시키는 어미를 강어미라고 한다. <표 4>에서 제시된 어미 중 '-고, -ᄋᆞ며/으며, -ᄋᆞ이/으이-, -오/우-'는 약어미에 해당하고, '-다가, -아/어, -ᄉᆞᆯ-, -시-[26], -ᄂᆞ-, -더-, -거-'는 강어미에 해당한다.[27] 金完鎭(1973: 59)에서는 이러한 실현 양상을 나타내는 성조를 '후의적(後依的) 성조'라 일컫고 그 기저성조를 'ㅅ(람다)'로 표기한 바 있다.

Ramsey(1986)에서는 현대 방언에서 Class 3과 Class 4의 어간의 성조가 다르

해준다(李基文 1977: 58).

25) '하게 하다, 시키다'와 같은 의미인 '히-'는 상성으로 나타난다.

26) 주체높임 '-ᄋᆞ시/으시-'는 어미를 구성하는 'ᄋᆞ/으'와 '시'의 성조가 각기 다르다. 'ᄋᆞ/으'의 성조가 유동적인 반면, '시'는 고정적인 거성을 보인다(김성규 2011: 275).

27) 김유범(2007), 김성규(2011)를 참고하여 작성한 약어미와 강어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게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두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Ramsey(1991)에서는 Class 3과 4의 어간에 '-거'계 어미가 결합할 때의 실현 양상이 다르고 어간 모음이 다르다[28]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이 레이(2006)에서 반론한 바와 같이, Ramsey(1991)에서 제시한 중세국어의 유일한 예인 '셔거나[平平去] <월석 19:5b>'는 '셔거나[去平去]'의 방점이 영인본에서 연하게 인쇄되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셔거나, 셔거늘(ᄂᆞᆯ)' 등의 예를 살펴보아도 모두 平平去가 아닌 去平去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Class 3과 4는 중세국어에서 성조 실현 양상에 차이가 없으므로 '평거 교체형'으로 묶어서 함께 제시한다.

(3) 평거 교체형 : 가-(去), 나-(出), 녀-(行), 누-(便), 두-(置), 디-(落), 보-(見), 사-(買), 셔-(立), 쏘-(射), 오-(來), 이-(戴), 자-(寢), 주-(與), 지-(負), 하-(多), 혀-(燈), 펴-(伸), ᄶᅧ-(燈), ᄒᆞ-(爲) 등

	강어미	약어미
어말어미	-애라, '-다가'계, -아/어, -암작/엄직	-다, -ᄋᆞ라/으라, -져, -고나, -고녀, -고라, -고려, -과라, -관뎌, -사이다 (종결어미) -게, -고, -고ᅀᅡ, -고져, -곤, -과뎌, -과ᄃᆡ여, -관ᄃᆡ, -긔, -긧고, -기, -ᄋᆞ나/으나, -도, -디, -디ᄇᆡ, -ᄃᆞ록, -ᄃᆞᆺ, -ᄋᆞ락/으락, -ᄋᆞ란ᄃᆡ/으란ᄃᆡ, -ᄋᆞ며/으며, -ᄋᆞ면/으면, '-ᄋᆞᆫ/은'계, '-ᄋᆞᆯ/을'계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ᄉᆞᆸ-, '-시-'계, '-ᄂᆞ-'계, '-더-'계, '-거-'계, '-돗-'계,	'-오/우-'계, -ᄋᆞ이/으이-

28) Class 3과 4는 모두 개음절 어간인데, Class 3의 어간 모음은 '아, 오, 우, 으, ᄋᆞ'이고 Class 4의 어간 모음은 '여, 이'이다(Ramsey 1991: 234).

2.5. 상성형

중세국어의 1음절 용언 어간 중 첫음절이 상성으로 나타나는 상성형 어간들은 어간 성조의 변동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항상 상성으로만 나타나는 고정적 상성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미에 따라 상성 또는 평성으로 나타나는 상평 교체형이다.

2.5.1. 고정적 상성형

Class 5는 고정적 상성 어간이다. 고정적 상성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업고[上去] <석상 6:5a>, 업서[上去] <석상 6:13a>'와 같이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의 첫음절이 항상 상성으로만 실현된다. (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어간들이 이러한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인다.

(4) 고정적 상성형 : 곱-(麗), 굵-(大), 뫂-(難), 뻬-(貫), 내-(出), 니-(葺), 둏-(好), 디-(造), 뵈-(視), 쉽-(易), 얻-(得), 셟-(悲), 셰-(머리가), 없-(無), 올-(全), 젹-(少), 혜-(思) 등

2.5.2. 상평 교체형

Class 6에 속하는 어간들은 자음어미와 결합할 경우 '알오[上去] <능엄 8:3b>'처럼 첫음절이 상성으로 나타나고, 모음어미와 결합할 경우 '아라[平去] <석상 6:2a>'처럼 평성으로 나타나는 상평 교체 어간이다. Class 6은 Class 1과 마찬가지로 어간말이 자음(군)이나 j인데, Class 1과 어간말 자음을 비교해 보았을 때 'ㄹ'을 제외한 다른 자음이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상평 교체형 : 갈-(耕), 갊-(斛), 개-(晴), 걷-(步), 걸-(掛), 검-(黑), 굶-(餓), 굻-(炙), 긷-(汲), 길-(長), 겯-(競), 남-(越), 넘-(過), 놀-(遊), 닐-(興), 닛-(繼), 담-(拯), 덜-(減), 떨-(振), 덮-(暑), 돌-(回), 돕-(助), 멀-(遠), 메-(擔), 몰-(驅), 묻-(問), 뮈-(動), 배-(倒), 벌-(張), 벼-(枕), 불-(吹), 뷔-(捻), 빌-(祈), 볿-(踏), 살-(生), 삼-(신을/스승으로), 숣-(白)[29], 새-(曉), 세-(强), 쉬-(休/吸), 싣-(載), 안-(抱), 알-(知), 앗-(奪), 얼-(氷), 열-(開), 엷-(薄), 옮-(染), 울-(泣), 웃-(笑), 일-(成), 절-(다리를), 짓-(作), 헐-(毁) 등

2.6. 2음절 평성형

Class 7과 Class 8은 모두 2음절 평성 어간으로, 어간말 자음이 'ㅸ', 'ㄷ/ㄹ', 'ㅿ', 'ㄴ'과 같은 유성이거나 'ㅎ'이다. Class 7에 속하는 어간은 모음어미와 결합하면 둘째음절의 'ᄋᆞ/으'가 탈락하고, 자음어미와 결합하면 'ᄋᆞ/으'가 탈락하고 유성자음이 무성화한다. 반면, Class 8에 속하는 어간은 Class 7과 유사하게 활용되나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자음이 연철되지 않고 첫음절의 종성이 된다. 李基文(1962)에서는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어간을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6)에 속하는 어간들이 이러한 어간이다.[30]

(6) 2음절 평성형

ㄱ. Class 7 : 나ᄒᆞ-(産), 노ᄒᆞ-(置), 누ᄫᅳ-(臥), 드르-(聽), ᄃᆞ외-(化), 믜ᄫᅳ-(憎), 브스-(注), 비스-(扮), 비ᄒᆞ-(比), 안ᄌᆞ-(坐), 연ᄌᆞ-(載), 저

29) '사뢰다'에 대응하는 형태이다.

30) 李基文(1962: 123-130)의 특수어간 교체유형은 다음과 같다.
제1류 : 시므~싞(植)
제2류 : ᄃᆞ라~달(異), 오ᄅᆞ~올(登), 니르/니ᄅᆞ~닐(謂), 고ᄅᆞ~골(均), ᄆᆞᄅᆞ~ᄆᆞᆯ(裁)
제3류 : 모ᄅᆞ~몰ㄹ(不知), ᄲᆞᄅᆞ~ᄲᆞᆯㄹ(速), ᄇᆞᄅᆞ~ᄇᆞᆯㄹ(塗), ᄆᆞᄅᆞ~ᄆᆞᆯㄹ(乾), 므르~믈ㄹ(退)
제4류 : ᄇᆞᄉᆞ~ᄇᆞᇙ(碎), 그스~긏(曳), 비스~빋(扮)

ᄒᆞ-(續) 등

ㄴ. Class 8 : 그ᅀᅳ-/긏-(引), 니르-/닐-(讀), 도ᄅᆞ-/돌-(回), ᄆᆞᄅᆞ-/ᄆᆞᆯ-(裁), 므르-/믈-(退), ᄇᆞᄅᆞ-/ᄇᆞᆯ-(塗), ᄇᆞᅀᆞ-/ᄇᆞᅀᆞᆯ-(碎), 브르-/블-, ᄲᆞᄅᆞ-/ᄲᆞᆯ-(速), 오ᄅᆞ-/올-(登), 흐르-/흘-(流) 등

(6ㄱ)에 속하는 어간들은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눕고[平去] <원각 하 3-1:102b>, 누ᄫᅳ며[平平去] <석상 6:33a>, 누버[平去] <석상 23:44b>'와 같이 활용되나, (6ㄴ)에 속하는 어간들은 '닐어[平去] <석상 19:43a>', 'ᄇᆞᅀᆞ아[平去][31] <석상 23:51a>'와 같이 활용된다. 활용 형태상의 차이가 있으나 성조 실현 양상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Class 7과 Class 8에 속하는 어간들을 '2음절 평성형'으로 총칭한다.

이상 (1-6)에서 중세국어 1음절 용언의 분류별 목록을 제시하였으나, 이 목록에 속하는 어간들 중에는 현대 경북 방언에서 대응하는 어형을 찾을 수 없거나 있더라도 쓰임이 적어 성조 실현 양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고정적 거성형에 속하는 '좋-(淨)'은 경북 방언에서 해당 어형을 찾을 수 없으며 상평 교체형에 속하는 '벌-(張)'은 쓰임이 적어 성조의 실현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32]

31) '흐르-/흘-'의 경우 '흘러[平去] <석상 9:21b>'처럼 어간의 'ㄹ'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간 둘째 음절의 자음이 'ㅿ'인 'ᄇᆞᅀᆞ-/ᄇᆞᅀᆞᆯ-'과 '그ᅀᅳ-/긏-'은 'ᄇᆞᆺ아[平去] <월석 21:118a>', '긋어다가[平去平去] <월석 9:35 2b>'와 같이 활용되기도 한다(崔桂英 2007: 62-64).

32) 구체적인 목록은 3장의 경북 방언 성조 유형별 목록 참고.

3.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분류

경북 방언의 하위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해당 방언의 성조에 대한 자료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鄭然粲(1974), 文孝根(1974), 김차균(1980 이후), 김주원(1991ㄴ 이후) 등에서는 어느 한 지역어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지역어의 자료를 종합하여 동남방언과 중세국어 성조의 대응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논의에서 동남방언의 용언 어간 성조 유형을 다루는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바, 이 장에서는 경북 방언의 용언 어간 성조를 어떠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지 살피고 그 방향을 정한 후, 경북 방언의 용언 어간 성조 유형을 제시한다.

3.1.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분류 방법

방언 성조를 기술할 때 모두 고려해야 하면서도 한편으로 부딪치게 되는 문제는 다른 지역 방언이나 중세국어와의 대응을 중시한 기술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 지역 방언을 공시적으로 기술하는 데 충실한 방식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김차균(1988)에서는 중세국어와의 대응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성조만 표시하는 측성법을 고안하였고, 김주원(1991ㄱ)에서도 방언 성조의 기술 방식이 논자에 따라 달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어절단위 성조에 따라 0형, Ⅰ형, Ⅱ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기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鄭然燦(1974: 47-80)에서는 경남방언[33]의 1음절 용언 성조형을 불변저조형, 불변고조형, 불변복합조형, 가변저조기본형, 가변고조기본형, 가변복합조기본형의

33) 鄭然燦(1974)의 제보자는 필자 자신으로, 필자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였다(鄭然燦 1974: 4).

여섯 유형으로 나누었다. 불변저조형과 불변고조형, 불변복합조형은 어미에 관계없이 각각 저조와 고조, 복합조로만 실현되는 어간이다. 이 세 유형은 어미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변하는 일이 없어 기본형을 정하기 수월하나, 후속어미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달라지는 경우 어느 쪽을 기본형으로 삼을지 문제가 된다. 가변저조기본형은 저조와 고조가, 가변고조기본형은 저조와 고조, 복합조가, 가변복합조기본형[34]은 복합조와 고조, 저조가 실현되는 유형이다. 鄭然燦(1974: 74)에서는 자음 말음 어간에는 가변고조기본형이 없고 모음 말음 어간에는 불변복합조형와 가변저조기본형이 없어 자음 말음 어간은 총 다섯 개의 유형이, 모음 말음 어간은 총 네 개의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김차균(1994ㄱ)에서는 용언 어간의 성조형을 방점의 변동 유무에 따라 변동이 없는 것들을 고정 평성 줄기, 고정 거성 줄기, 고정 상성 줄기의 셋으로 나누고 변동이 있는 것들을 변동 평성 줄기, 변동 거성 줄기, 변동 상성 줄기로 나누었다. 이 논의에서는 경북 방언의 고조, 저조, 저장조가 각각 중세국어의 평성, 거성, 상성에 해당하며, 거성과 상성, 곧 저조와 저장조는 유표적인 성조인 '측성'이라고 한다.

중세국어 성조와 동남방언 성조의 대응을 정연하게 보이고, 중세국어 문헌에서 유용한 표기 수단이었던 방점법을 현대 국어의 방언을 표기하는 데 살려 썼다는 점에서 김차균(1979 이후)의 논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측성법과 방점법을 채택하지 않는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러한 표기법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이다. 어떠한 자료가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보고 그 표기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중세국어와 경남지역의 방언 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방점법은 유용한 방법일 수 있으나 "去聲은 ᄆᆞᆺ노ᄑᆞᆫ소리라 上聲은 처ᅀᅥ미ᄂᆞᆺ갑고 乃終이노ᄑᆞᆫ소리라 平聲은 ᄆᆞᆺᄂᆞᆺ가ᄫᆞᆫ소리라"라는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의 설명을 알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점이 없는 것은 낮은 소리, 하나만 있는 것은 높은 소리, 두

34) 가변복합조기본형에 속하는 모음 말음 어간들은 저조로 실현되지 않는데, 이는 모음 말음 어간이 매개모음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鄭然燦 1974: 71).

개 있는 것은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라고 인식할 것이다. 표기된 성조형의 실현형을 알기 위해서는 논의에 제시된 규칙을 어형에 일일이 대입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경북 방언의 실재 자료를 관찰하기 위해 자료에 제시되지 않는 규칙을 밟아가야 하는 것으로, 직관적이지 못한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고조(H), 중조(M), 저조(L)의 세 성조소를 가지는 경남방언과의 대응을 쉽게 보이기 위해 경북 방언의 성조소를 고조(H)와 저조(M)으로 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는다. 김차균(1994ㄴ: 253)에서는 경남에 속하는 창원 방언의 중조(M)와 경북에 속하는 대구 방언의 저조가 같은 높이이므로 대구 방언의 저단조와 저장조를 'L'과 'L:'로 표기하는 대신 'M'과 'M:'으로 표기한다고 하였는데, 음성적으로는 그러한 특성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때문에 경북 방언의 성조소를 M으로 설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성조언어의 언중이 성조를 통하여 의미를 변별하는 것은 각 음절의 절대적인 높낮이를 의식해서라기보다 상대적인 높낮이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표기를 따르자면 대구방언은 M과 H만 가지게 되어 개별 방언의 기술에 완결성을 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숙희(2008: 26)는 상대적인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방언 성조의 종류를 구분하여 고조와 저조를 설정하는 견해를, 같은 성조언어인 중국의 표준 북경어에 제1성(평탄하게 높은 소리), 제2성(중간 정도의 높이에서 시작하여 높은 소리로 수직 상승하는 소리), 제3성(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높은 곳으로 굴곡 상승하는 소리), 제4성(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직 하강하는 소리)의 네 성조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와 한국어의 성조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이 두 언어를 같은 선상에 놓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이 논의에서는 고장조(H:)를 '첫 소리부터 끝소리까지 평탄하게 높되 마지막에 뒤끝이 약간 더 높아진 채 끝맺는 소리', 저장조(L:)를 '저조에서 시작하여 평탄하게 이어지다가 뒤끝이 약간 높아진 채로 끝맺는 소리'라고 규정하였는데, 상대적인 높낮이로 방언 성조를 파악하고 고장조나 저장조가 결국은 모두 [+Rising]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것들은 모두 상승조로 파악할 수 있다. 김차균(1994ㄴ)이나 박숙희(2008)에서도 이러한 성조를 중세국어의 상성에 대응하는 성조로 묶어 기술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상승조로 보는 편이 더욱 간명한 기술이 될 것이다.[35]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 본고의 목적은 15세기 국어와 현대 경북 방언에서 공시적으로 나타나는 성조 유형을 바탕으로 그 대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세국어 성조형과의 대응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북 방언에서 상승조(R)와 하강조(F)가 저조(L)나 고조(H)와 마찬가지로 최소대립어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승조와 하강조를 인정한다.

(1) 마리[HL]　　말보다[LHL] (馬)
　　마리[HH]　　말보다[HHL] (斗)
　　마리[RH]　　말보다[RHL] (語)

(2) 사리[FL] (싸리나무)
　　사리[HL] (부처의 사리, 윷의 사리)
　　사리[RL] (事理)

(1)은 崔明玉(1999: 558)의 예이고 (2)는 김세환(2012ㄱ: 13)의 예이다. (1)에서 '말'은 각각 저조, 고조, 상승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조 차가 아니고서는 의미를 변별하기 힘들다. (2)는 청송 지역어의 예로, 이 지역어에서는 'ㅅ'와 'ㅆ'의 구별이 없어 세 단어의 분절음이 동일하므로 하강조와 고조, 상승조의 차이가 아니고서는 (2)의 '사리'의 의미를 구별할 수 없다. (1)의 '말(語)'이나 (2)의 '사리(싸리나무)', '사리(事理)'의 첫음절이 길게 발음되므로 음장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성조언어에서의 음장은 상승조나 하강조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적인 것으로, 높낮이처럼 변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2)의 '사리(싸리나무)'와 '사리(事理)'의 첫음절은 음장이 아닌 하강조와 상승조만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차균(1994ㄱ, ㄴ), 박숙희(2008)에서의 고장조(H:)나 저장조(L:) 표기, 김세환(2005), 林錫圭(2007)에서의 저고복합조(L·H),

35) 박숙희(2008: 61)에서는 음소적 층위에서 고조(H)를 평성, 저조(L)를 거성, 낮으며 긴(L̗) 혹은 높으며 긴(H̗) 성조를 상성이라 부르고, 이를 방점으로 표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저복합조(H·L) 표기 대신 상승조(R), 하강조(F)를 사용한다.[36]

다음으로 (1)의 '말(馬)', '말(斗)', '말(語)'의 성조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의 명사가 조사와 결합할 때의 어간 성조 실현형이 각각 '말(馬)'은 L 또는 H로, '말(斗)'은 H로, '말(語)'은 R로 나타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말(馬)'을 고저 교체형으로, '말(斗)'을 고정적 고조형으로, '말(語)'을 상승조형으로 본다. 또한 용언 어간 성조형의 분류는 어간의 성조 실현 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조형, 상승조형, 하강조형으로 나눈 후 성조 변동의 유무에 따라 고조형을 고정적 고조형과 고저 교체형으로, 상승조형을 고정적 상승조형과 상고 교체형으로, 하강조형을 고정적 하강조형과 하고 교체형으로 나눈다.

3.2. 고조형

앞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말(馬)', '말(斗)'과 유사한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는 용언 어간들을 기본적으로 '고조형'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조형에 속하는 성조형에는, '말(斗)'과 같이 어떤 어미가 통합하더라도 어간의 성조는 변함없이 고조로 나타나는 고정적 고조형과 '말(馬)'과 같이 통합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저조로 변동하는 고저 교체형이 있다.

3.2.1. 고정적 고조형

고정적 고조형에 속하는 어간은 어떠한 어미와 통합하더라도 어간의 성조가 변

36) 김세환(2012ㄱ)에서는 L·H, H·L이 아닌 R, F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표기한다. 박숙희(2008)에는 하강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고조와 저조가 연속된 2음절(HL)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하강조(F)로 치환하여 표기한다.

동하지 않고 고조로만 나타난다.[37]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 중 말음이 자음인 '찾-'과 모음인 '끄-'의 예를 (3)과 (4)에 각각 제시한다.

(3) '찾-(探)'의 성조 실현 양상[38]

찾-(探)	경주	대구	문경	울진	청송	포항
-고	착꼬 [HH]	착꼬 [HH]	착꼬 [HH]	착꼬 [HH]	착꼬 [HH]	찾고[39] [HH]
-으니/면	차즈머 [HHL]	차즈먼 [HHL]	차저먼 [HHL]	차저이 [HHL]	차즈이 [HHL]	찾으머 [HHL]
-아(도)[40]	차자도 [HHL]	차자 [HH]	차자도 [HHL]	차자도 [HHL]	차저 [HH]	찾아도 [HHL]
-더라	찬떠라 [HHL]	찬뜨라 [HHL]	찬떠라 [HHL]	찬떠라 [HHL]	찬뜨라 [HHL]	찾드라 [HHL]

(3)은 어간 '찾-'이 1음절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 2음절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활용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지역별로 음소 체계가 달라 '으'가 아닌 '어'가 나타나는[41] 등 어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있으나 성조의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에서 활용형의 성조는 그 음절수가 2음절인 경우 HH, 3음절인 경우 HHL로 나타나고 있어 어간의 성조가 H로만 실현되고 있다.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인 '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37) 김차균(1994ㄴ)에서는 이러한 어간들을 일컬어 '고정적 거성 줄기(M)'이라 한 바 있다.

38) 예시는 정철(1997)의 하위방언권 분류 중 '남부지역어(경주・대구)-서부지역어(문경)-북부지역어(청송)-동해안지역어(울진・포항)'의 순서대로 제시한다.

39) 포항 지역어의 어형 표기는 박숙희(2008)를 따른 것이다. 박숙희(2008: 23)에서는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ㅅ/와 /ㅆ/가 변별되지 않는 방언에서도 '-었/았-, -겠-'에 대응되는 형태소의 말자음을 'ㅆ'로 표기하고, /ㅖ/는 'ㅡ'와 'ㅓ'로, /ㅐ/는 'ㅖ'와 'ㅐ'로 분리하여 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40) 각 지역별로 기저형으로 잡을 수 있는 어미의 형태가 크게 다르므로 본고에서는 부득이하게 어미는 표준어형으로 제시한다. 단, 모음어미 '-아/어X'형은 경북 전역에서 기저형을 '-아X'형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아X'형으로 제시한다.

41) 문경과 울진 지역어는 모음소 체계에 /으/(ɨ)가 없다(林錫圭 2007: 24).

(4) '끄-(滅)'의 성조 실현 양상

끄-(滅)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고	끄고 [HH]	끄고 [HH]	꺼고 [HH]	끄고 [HH]	꺼고 [HH]	끄고 [HH]
-으니/면	끄머 [HH]	끄머 [HH]	꺼머 [HH]	끄머 [HH]	꺼머 [HH]	*끄머[42] [HH]
-아도/야	꺼도 [HH]	꺼도 [HH]	꺼도 [HH]	꺼도 [HH]	꺼야 [HH]	꺼도 [HH]
-더라	끄더라 [HHL]	끄드라 [HHL]	꺼더라 [HHL]	끄드라 [HHL]	꺼더라 [HHL]	끄드라 [HHL]

포항 지역어 자료에서는 어간 '끄-'가 '-으면'과 결합하였을 때의 활용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끄-'가 '-아도, -더라' 등 다른 어미와 활용될 때 드러나는 성조나 같은 유형에 속하는 '크-'의 활용 양상을 참고하면 '끄-'가 '-으면'과 활용될 때 (4)에 제시한 것처럼 활용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끄-'는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으'가 탈락하여 [꺼도] 등으로 실현되나 성조는 HH로 나타난다. 이는 (3)의 '찾-아도'가 HHL인 것과 대조적이다. (3)의 '찾-으면'과 (4)의 '끄-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예들은 경북 방언에서 3음절 이상인 어절의 마지막 음절이 항상 저조로 나타나는 성조 배열 제약을 보여준다.

林錫圭(1999, 2007), 김세환(2005, 2012)에서는 '찾-'이나 '끄-'와 같은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는 어간을 '말(斗)'과 마찬가지인 H_2로 보았다. H_2는 한 기식군 안에서 항상 다른 고조와 함께 나타나는 성조소이므로 '찾-+-고'의 활용에서 성조변동규칙 '$H_2+H_2 \rightarrow$ HH'에 따라 HH로 실현된다고 본 것이다. 어미의 결합에 어간의 성조 실현이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3)이나 (4)와 같은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는 어간을 고조로 보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고정적 고조형에 속하는 1음절 어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42) '*' 표시가 앞에 붙은 어형·성조형은 해당 어형·성조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형태이다.

(5) 고정적 고조형 : 갈-(摩)[43], 꼬-/꽂-/꾸-[44](索), 꼬-/꾸-[45](借/夢), 깔-(席), 깨-[46](覺), 들-(入), 달-(掛), 비-(切), 싸-/사-[47](包/泄), 쏘-/쑤-/수-(射), 쓰-/씨-/스-/시-[48](用/書), 숨-/숨ㅁ-[49](隱)[50], 옳-(是), 찌-/쪄-[51](蒸), 차-[52](寒/蹴/滿), 참-(忍), 찾-(探), 추-/처-/치-[53](舞), 치-/처-(打), 춥-(寒), 크-(大), 타-(燃/乘/昇), 피-(開花), 푸-(汲), 파-(掘), 팔-(賣), 히-(白) 등

고정적 고조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 중 '애'나 '이'로 끝나는 것들은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상승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4)에 제시한 목록 중 '애'나 '이'로 끝나는 어간에는 '깨-, 비-, 찌-(문경에서는 '쩌-'), 치-(문경에서는 '처-'), 피-, 히-'가 있는데, 이 중 '깨-'의 활용 양상을 (6)에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

43) 경주 지역어 자료에서는 해당 어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44) '꼬-' 외에 '꾸-'는 청송과 포항에서, '꽂-'은 문경과 울진에서 나타나는 어형이다.

45) 경주에서는 '꼬-'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꾸-'로 나타난다.

46) 경북 방언에는 '에'와 '애'의 변별이 없다. 어간의 실현형을 표시할 때는 'E'에 해당하는 표기로써 '에'를 사용하나, (5)와 같이 기저형을 제시할 때는 편의상 '애'로 표기한다.

47) 청송 지역어에서는 자음소 목록에 /ㅆ/이 없다. 이는 김세환(2005: 6)에서 설정한 음소목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청송군 부동면의 말을 조사한 김세환(2005)과 달리 정철(1997: 70)에서는 이 지역어에 /ㅆ/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48) 문경과 울진에서는 '쓰-'와 '씨-', 대구에서는 '스-',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로 나타난다.

49) 울진에서는 '숨마도'와 같이 활용되므로 어간의 기저형을 '숨ㅁ-'으로 설정할 수 있다.

50) 고정적 고조형의 'ㅁ'말음 어간에 대한 설명은 4장에서 이루어진다.

51) '쪄-'는 문경에, '찌-'는 문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52) 대구에서는 '寒'에 해당하는 어휘로 '찹-'을 많이 사용한다. 김차균(1991: 438-9)에서는 20대 이하에서 나타나는 어형이라고 하였으나, 추가 조사 결과 50대 이상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치-'는 울진, '처-'는 문경 지역어에 해당하는 어형이다. 그 외에는 모두 '추-'로 나타난다.

(6) ‘깨-(覺)’의 성조 실현 양상

깨-(覺)	경주	대구	문경	울진	청송	포항
-고	깨고 [HH]	깨고 [HH]	께고 [HH]	께고 [HH]	깨고 [HH]	깨고 [HH]
-아X	깨애도 [HHL]	깨도 [RH]	께도 [RH]	께도 [RL]	깨라 [RL]	깨라 [RL]

경주를 제외한 다섯 지역어에서 ‘깨-’는 모음어미와 활용할 때 상승조로 실현된다. ‘-고’와 결합할 때 어간의 성조가 변동 없이 H로 나타나는 점이나 경주에서 HHL로 실현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R은 음절수가 줄어들면서 어간과 어미의 고조가 축약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깨-(覺)’와 활용형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성조로 의미가 구별되는 ‘깨-(破)’의 경우 같은 환경에서 음절이 축약되지 않을 때는 ‘깨애서[HLL]’로, 축약될 때는 ‘깨라[FL]’로 나타나므로, HH가 축약될 때는 R로, HL이 축약될 때는 F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5)에 제시한 어간들 중 ‘ㅊ, ㅉ’을 초성으로 하는 ‘이’말음 어간들은 문경에서 ‘처-, 쩌-’로 재구조화되었다. 문경 지역어에서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는 ‘이’말음 단음절 어간(Xi)이 모두 ‘Xㅕ’로 재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을 林錫圭(2007: 101-2)에서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 ‘찌-’의 활용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찌-(蒸)’의 활용 양상

찌-(蒸)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고	찌고[HH]	찌고[HH]	쩌고[HH]	찌고[HH]	찌고[HH]	찌고[HH]
-아도	쩌도[HH]	쩌도[HH]	쩌도[HH]	쩌도[HH]	쩌도[HH]	쪄도[HH]
-아야	쩌야[HH]	쩌야[HH]	쩌야[HH]	쩌야[HH]	쩌야[HH]	쪄야[HH]

(7)과 같이 문경에서는 모음어미인 ‘-아도, -아야’와 통합할 때만이 아니라 자음어미인 ‘-고’와 결합할 때도 어간이 ‘찌’가 아닌 ‘쩌’로 나타난다. 재구조화가

이루어져 ‘어’말음 어간으로 고정된 경우에도 어간의 성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조로 실현된다. (6)의 ‘깨도, 깨라’가 RH(또는 RL)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7)의 ‘쩌도, 쩌야’는 HH로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쩌-’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문경 외의 지역에서 ‘찌-’는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이’가 탈락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2.2. 고저 교체형

후속어미와 상관없이 고조로만 나타나는 고정적 고조형과 달리, 고저 교체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후속어미에 따라 고조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잡-’의 경우를 예로 들어 고저 교체형의 성조 실현 양상을 살펴본다.

(8) ‘잡-(捕)’의 성조 실현 양상

잡-(捕)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고	작꼬 [HL]	잡꼬 [HL]	잡꼬 [HL]	잡꼬 [HL]	잡꼬 [HL]	잡고 [HL]
-으니/면	자부머 [HLL]	자브이 [HLL]	자부이 [HLL]	자부이 [HLL]	자부이 [HLL]	잡으머 [HLL]
-아(도)	자바도 [HLL]	자바도 [HLL]	자바 [HL]	자바 [HL]	자바 [HL]	잡아도 [HLL]
-더라	잡떠라 [LHL]	잡뜨라 [LHL]	잡떠라 [LHL]	잡뜨라 [LHL]	잡떠라 [LHL]	잡드라 [LHL]

(8)과 같이 ‘잡-’은 ‘-고, -으니, -아(도)’와 통합할 때는 어미의 성조를 저조로 만들고 어간의 성조는 고조를 유지하나, ‘-더라’와 통합할 때만은 저조로 바뀌어 나타난다. 어간의 성조가 고조로 고정되어 있어 기저형을 고조로 설정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는 (3)의 경우와 달리 고저 교체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어미에 따라 저조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어 그 기저형을 고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조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8)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저 교체형 어간을 저조로 실현시키는 어미는 고조로 실현시키는 어미에 비해 그 수가 적다. 文孝根(1974: 28-29), 최명옥(1998ㄱ: 35)에서는 이러한 고저 교체형 어간들이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와 통합할 때 어간이 저조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고저 교체형 어간이 2음절 자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성조 실현 양상을 고정적 고조형의 경우와 대비하여 (9)에 보인다.

(9) '갚-(報)'과 '참-(忍)'의 성조 실현 양상(2음절 자음어미)

	갚-(報)	참-(忍)
-구로[54]	각꾸로[LHL]	참꾸로[HHL]
-는다	감는다[LHL]	참는다[HHL]
-더라	갑뜨라[LHL]	참뜨라[HHL]

(9)의 '갚-(報)'은 고저 교체형에 속하는 어간이고, '참-(忍)'은 고정적 고조형에 속하는 어간이다. 2음절 자음어미 '-구로', '-는다', '-더라'와 결합할 때 '참-'은 늘 HHL로 실현되어 어간의 성조가 변하지 않지만, '갚-'은 LHL로 실현되어 어간의 성조가 저조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어간은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뿐만 아니라 '-는, -던' 등과 결합할 때도 '참는[HH], 참떤[HH]'과 다르게 '잠는[LH], 잡떤[LH]'으로 나타나 (9)와 같은 현상을 보이므로 文孝根(1974), 최명옥(1998ㄱ)에서처럼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로 기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간의 성조를 변화시키는 유형의 어미들이 모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다. 林錫圭(2007: 95-96)에서 제시한 문경・영주・울진 지역어의 어미 목록을 살펴보면, '-지(부사형 어미), -디, -는/넌, -던[55]'을 제외하고 1음절 어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어간과 결합하였을 때 어간의 성조를 저조로 실현시키는 어미가 비슷한 속성으로 묶일 수 있으므로 공시적으로 고저 교체형에 해

54) '-으려고'에 해당하는 경북 방언형.

55) 이 중 '-는/넌, -던'은 선어말어미 '-느-'와 '-더-'를 포함하고 있는 어미이다.

당하는 성조의 기저형은 고조로 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林錫圭(1999 이후), 김세환(2005, 2012)에서는 이러한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는 어간의 성조를 H_1, 즉 한 기식군 안에서 혼자 나타날 수 있는 성조소로 보았다. 하나의 기식군 안에 H_1은 하나만 놓일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H_1이 오는 '잡-+-는', '잡-+-더라'가 'H_1+H_1 → LH, H_1+H_1L → LHL'의 과정을 거쳐 LH, LHL로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해당 지역어를 공시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간의 기저성조를 고정적 고조형과 다르게 보아 같은 어미가 결합했음에도 각기 다른 성조형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내는 것이 온당하다. 본고 또한 경북 방언의 공시적 기술에서 이러한 논의를 따라 '잡-고[HL], 잡-아[HL], 잡-더라[LHL]'와 같이 활용되는 어간을 기본적으로 고조형으로 보되, 어간 성조 실현 양상을 명칭에서 드러내기 위해 '고저 교체형'이라 명명한다.

고저 교체형에 속하는 어간의 목록은 (10)과 같다. 고저 교체형 어간은 다른 유형에 비해 그 수가 많은 편이며, 개음절 어간에 비해 폐음절 어간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10) 고저 교체형 : 갚-(報), 곧-(直), 굳-(硬)[56], 깎-(削), 꺾-(折), 꼽-(揷), 날-(飛), 녹-(溶), 늙-(老), 늦-(遲), 띠-/뛰-[57](躍), 닫-(閉), 듣-/듫-(聞)[58], 들-(擧), 막-(防), 매-(結), 먹-/묵-[59](食), 묻-(埋), 물-(咬), 믿-(信), 맑-(淸), 벗-(脫), 붙-(附), 밝-(明), 썩-/석-[60](腐), 섞-(雜), 앓-(痛), 익-(熟), 읽-(讀), 잃-(失), 입-(着), 잊-(忘), 잡-(捕), 좁-/쫍-[61](狹), 쫓-(追), 죽-(死), 질-(泥), 흩-(散) 등

56) 울진에서는 '파도가 친다'는 뜻으로 '굳-'을 사용하기도 한다(林錫圭 2007: 73).

57) 청송에서는 '띠-'와 '뛰-'가 모두 나타난다.

58) 문경과 울진에서는 '들꼬[HL], 드러서[HLL]'와 같이 정칙활용을 하므로 단일기저형 '듣-'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두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복수기저형 '드{ㄷ-ㄹㅇ}'로 설정해야 한다.

59) 경주, 대구, 포항에서는 '묵-'으로 나타난다.

60) 경주, 청송에서는 '석-'이다.

61) 청송, 대구에서는 '쫍-'으로 나타난다.

3.3. 상승조형

상승조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기본적으로 어간의 성조가 상승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승조형 어간 중에서도 후행하는 어미가 모음어미인 경우 어간 성조가 변동되는 것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상승조형을 고조형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승조로만 실현되는 고정적 상승조형과, 후행 어미에 따라 상승조로 실현되기도 하고 고조로 실현되기도 하는 상고 교체형으로 나눈다.

3.3.1. 고정적 상승조형

고정적 상승조형은 고정적 고조형과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어미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상승조로 실현되는 어간이다. 고정적 상승조형에 속하는 '얻-'의 지역별 활용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얻-(得)'의 성조 실현 양상

얻-(得)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고	억꼬 [RH]	얻꼬 [RH]	얻꼬 [RH]	억꼬 [RL]	얻꼬 [RL]	얻고 [RL]
-으니/면	어드머 [RHL]	어드이 [RHL]	어더이 [RHL]	어드이 [RLL]	어더이 [RLL]	얻으이 [RLL]
-아(서/도)	어더도 [RHL]	어더서 [RHL]	어더 [RH]	어더 [RL]	어다 [RL]	얻어도 [RLL]
-더라/는다	얻떠라 [RHL]	얻뜨라 [RHL]	언넌다 [RHL]	언는다 [RLL]	언넌다 [RLL]	얻드라 [RLL]

(11)을 살펴보면 경주와 대구, 문경에서 상승조 뒤에 고조가 실현(RH, RHL)되는 것과 달리 청송과 울진, 포항에서는 상승조 뒤에 저조(RL, RLL)가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해안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林錫圭

(2007: 28)에서는 동해안 지역어에 상승조 다음 저조만 나타나는 성조 배열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어미나 후행 성조 등 다른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승조가 선행하는 경우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해당 지역의 성조 배열 제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분석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동해안 지역어로 분류되지 않는 청송 지역어에서도 '억꼬[RL]', '언는다[RLL]'처럼 상승조 다음에 저조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청송이 지리적으로 영덕, 포항과 인접해 있어 동해안 지역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62] 경북 전 지역을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으나, 이 성조 배열 제약에 따르면 다른 지역과 청송, 울진, 포항의 사이에 방언이 분화되는 분기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정적 상승조형에 속하는 어간은 다음과 같다.

(12) 고정적 상승조형 : 곱-(麗)[63], 굵-(大), 좋-(好), 숩-/십-[64](易), 얻-(得), 없-(無), 작-/짝-[65](小), 적-/쩍-(少) 등

3.3.2. 상고 교체형

상고 교체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자음어미와 통합할 때는 상승조로 실현되고 매개모음어미나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는 고조로 실현된다. 상고 교체형에 속하는 '밟-(踏)'의 성조 실현 양상을 (13)에 제시한다.

---

62) 성조 이외에도 음운론적으로 청송 지역어가 동해안 지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김세환(2012ㄱ)에서 밝힌 바 있다.

63) 이 어간은 '고{ㅂ-우}'의 복수기저형으로 볼 수 있다.

64) '십-'은 대구, '숩-'은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어들의 어형이다. '숩-'과 '십-'은 '수{ㅂ-우}', '시{ㅂ-우}-'의 복수기저형으로 설정될 수 있다. 단, 포항의 '숩-'과 경주의 '십-'은 단일기저형이다.

65) 대구에서는 '짝-(小)', '쩍-(少)'으로 나타난다.

(13) ‘밟-(踏)’의 성조 실현 양상

밟-(踏)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고	발꼬 [RH]	발꼬 [RH]	발꼬 [RH]	발꼬 [RL]	발꼬 [RL]	밟고 [RL]
-으면	발부머 [HLL]	발부먼 [HLL]	발부먼 [HLL]	발부머 [HLL]	발부먼 [HLL]	밟으머 [HLL]
-아(도)	발바도 [HLL]	발바 [HL]	발바 [HL]	발버 [HL]	발바 [HL]	밟아도 [HLL]
-더라/는다	발떠라 [RHL]	발른다 [RHL]	발떠라 [RHL]	발른다 [RLL]	발떠라 [RLL]	밟드라 [RLL]

‘밟-’에 자음어미가 결합할 때의 성조 실현형은 RH(또는 RL)와 RHL(또는 RLL)로 고정적 상승조형과 동일하지만 매개모음어미 ‘-으면’이나 모음어미 ‘-아(도)’가 결합할 때는 HLL, HL로 실현된다. 이때의 성조는 고저 교체형의 HL(L)과 동일한 것을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ㅎ, ㄱ’말음이나 모음 말음 어간은 매개모음어미나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음절수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연속되는 HL은 하강조(F)로 실현된다. (14)는 경북 방언에서 ‘비-(枕)’가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의 활용 양상을 간단히 보인 것이다.

(14) 비-(枕) : 비도[FL]　비라[FL]　빈따[FL]

‘비-’는 ‘-고’가 후행할 경우 R로 나타나지만 모음어미와 결합하면 (14)와 같이 F로 나타난다. ‘잡-’이 ‘-아(도)’와의 활용에서 HLL로 실현되는 것을 (13)에서 확인하였으므로 (14)의 FL은 ‘비-+-아(도) → 비어(도)/HL(L)/ → 비이(도)/HLL/ → 비(도)[FL]’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절이 축약되는 과정에서 성조 또한 HL에서 F로 축약된 것이다.

상고 교체형에 속하는 어간은 세분하면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4)처럼 매개모음어미나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 둘째음절의 성조가 저조로 실현되는 RH∽HL형이고, 다른 하나는 둘째음절의 성조가 고조로 실현되는 RH∽HH형이다. 일부 지역에서 '갈(耕)-, 몰-(驅)'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수가 극히 적어 일반적인 유형으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66] 따라서 (15)의 상고 교체형 어간 목록에는 RH∽HH형의 어간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15) 상고 교체형 : 갈-(耕), 걸-(掛), 걺-(步), 굶-(餓), 길-(長)[67], 꿉-/꿇-(炙)[68], 넘-(越/過), 놀-(遊), 담-(球), 덥-[69](暑), 돌-(回), 몰-(驅), 뭃-(問)[70], 밀-(推), 떨-(振), 일-(興)[71], 잇-(繼)[72], 비-(枕), 불-(吹), 빌-(祈), 밟-(踏), 살-(生), 삼-(스승으로), 싫-(載), 안-(抱), 알-(知), 열-(開), 울-(泣), 웃-/웃-(笑)[73], 짛-(作) 등

3.4. 하강조형

하강조형에 속하는 어간은 고조형, 상승조형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 여섯 지역어의 어간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하강조로 나타나는 형태는 '이-(葺)'와 '비-(視)' 정도이다. 이 중 '비-(視)'는 '보이-'의 축약형으로

66) 林錫圭(2007: 75)에서는 이러한 어간들이 본래는 H_2(본고에서는 고정적 고조형) 어간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67) 경주, 청송에서는 구개음화된 형태인 '질-'도 나타난다.

68) '꿉-'은 경주, 대구, 청송, 포항의 어형이고 '꿇-'은 문경과 울진의 어형이다.

69) 단일기저형 '덥-'인 경주, 대구, 청송, 포항과 다르게 문경과 울진에서는 '덥-'과 '더우-'의 복수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70) 경주 지역어에서는 복수기저형 '무{ㄷ-ㄹㅇ}'으로 설정할 수 있다.

71) 청송에서는 2음절인 '이리-'가 더 많이 쓰인다.

72) '이숳-[LH]'으로도 쓰인다.

73) '웃-'은 경주, 청송, 포항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볼 수 있으나 경북 방언에서 '보이-'의 성조가 공통적으로 LH라는 점을 고려하면 축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승조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지역에 따라 '보이-'의 의미일 때 '비이[LF]-'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성조는 모음에 부과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첫음절의 '이'가 탈락하고 둘째 음절의 '이'의 성조만 남은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비-'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비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이이[LF]-'는 발견되지 않아 이런 추측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하강조를 보이는 어간이 상승조를 보이는 어간에 비해 수가 매우 적고, 하강조와 상승조를 동시에 보이는 어간도 있어 하강조는 상승조에 비해 나중에 생겨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상승조와 하강조는 음절의 길이가 길다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상승조인 어간이 상대적으로 하강조로 이끌리기 쉬웠을 수 있다. 따라서 LH인 '보이-'는 본디 상승조였으나, '비-'로 재구조화되면서 성조가 상승조에서 하강조로 변화를 겪은 것으로 생각된다.

(16) '이-(蒨)'의 성조 실현 양상[74]

이-(蒨)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고	이고[HL]	이고[FL]	이고[FL]	이고[FL]	이고[FL]	이고[FL]
-아라		이어라[HLL]	이라[FL]	이라[FL]	이라[FL]	이라[FL]
-는다	인다[FL]	인다[FL]	인다[FL]	인다[FL]	인다[FL]	인다[FL]

다만 '이-'의 경우는 '비-'와 같이 '보이-'에서 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어형이 없어 공시적으로 경북 방언에서 유일한 순수 하강조 어간이라 할 수 있다. (16)에서 '이-'는 뒤에 어떠한 어미가 오더라도 하강조로 실현될 뿐, 다른 성조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구 지역어의 '이어라[HLL]'를 고려하

74) 문경과 울진 지역어 자료인 林錫圭(2007)에서 '이-'는 유동적 하강조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16)에서는 ≪韓國方言資料集 Ⅶ≫의 지역별 어형을 제시하였다. 경주 지역어는 최명옥(2008)에 '이-'의 분류나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韓國方言資料集 Ⅶ≫의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면 ‘이-’가 ‘-아라’와 결합한 ‘이라[FL]’의 하강조는 음절수가 줄어들면서 고조와 저조가 병치되어 생겨난 하강조이다. 따라서 ‘이-’는 하고 교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승조형이 고정적 상승조형과 상고 교체형으로 나뉘듯이 하강조형도 후행어미와 관련 없이 하강조로만 실현되는 고정적 하강조형과 매개모음어미나 모음어미 앞에서 고조로 실현되는 하고 교체형이 있을 것이라고 쉬이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1음절 용언 어간 중에서는 고정적 하강조형에 해당하는 어간을 찾지 못하였다. 林錫圭(2007: 75)에서는 ‘끌-(牽), 벌-(得), 썰-(切)’을 고정적 하강조 어간으로 분류하였으나 청송이나 대구에서 이 어간들이 상승조로 실현되고 있어 함께 하강조형으로 분류하기 어렵다.[75] 하강조를 고저복합조로 설정하는 논의에서는 상고 교체형에 해당하는 어간을 복수기저형으로 설정하고, 하고 교체형에 해당하는 어간을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고조로 변동한다’라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한다. (16)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11)과 (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승조 뒤에서 고조가 실현되던 대구와 문경에서도 하강조 뒤에서만은 항상 저조가 실현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북 방언의 1음절 용언 어간 성조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하강조는 고정적 하강조형에 해당하는 어간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고 교체형의 실현형만 제시한다.

75) 대구 지역어에서 ‘써리[FL]-(切)’의 1음절이 하강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고조형		상승조형		하강조형
	고저 교체형	고정적 고조형	고정적 상승조형	상고 교체형	
-고	HL	HH	RH (RL)[76]	RH (RL)	FL
-으면	HLL	HHL	RHL (RLL)	HLL	FL[77]
-아도	HLL	HHL	RHL (RLL)	HLL	HLL
-더라	LHL	HHL	RHL (RLL)	RHL	FLL

<표 5> 경북 방언의 1음절 용언 성조형 분류표

76) 상승조 뒤에 항상 저조가 오는 청송, 울진 지역어를 고려하여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하였다.

77) 본고의 연구 대상인 지역어에서 하강조형에 속하는 어간은 모두 개음절 어간이므로 3음절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16)에서 제시한 대구 지역어의 '이어라[HLL]'가 예외적인 경우이다.

4.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대응

4.1.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어절 성조 대응

4.1.1. 체언 성조의 대응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용언 활용형 성조 대응을 논하기에 앞서, 체언의 성조 대응을 통해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일반적인 성조 대응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金完鎭(1973)에서는 고정적 상성과 유동적 상성[78]의 차이는 용언 어간에서만 나타나고 체언에서는 고정적 상성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용언 어간의 성조 유형에 비해 체언의 성조 유형이 단순하므로 어절 성조의 일반적인 대응을 보이기에 적절하다 할 수 있다.

현대 경북 방언에서 성조가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말(馬), 말(斗), 말(語)'의 15세기 성조형은 (1)과 같다. 체언 단독형의 성조만 보아서는 그 성조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주격 조사 '-이'가 통합한 형태를 제시한다.

(1) 말(馬) : ᄆᆞ리[平去] <월석 2:46b>
말(斗) : 말[去] <월석 8:90b>
말(語) : 마리[上去] <월석 2:70b>

(1)에서 '말(馬)'은 평성, '말(斗)'은 거성, '말(語)'은 상성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이'는 거성으로 실현된다. 중세국어에서 대부분의 문법형태소는 '-이'와 같

78) 金完鎭(1973)에 의하면 고정적 상성의 기저형은 l·h이고 유동적 상성의 기저형은 l-h이다. '-'으로 연결된 성조는 분리될 수 있으므로 l-h을 기저형으로 가지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간의 h가 뒤의 음절로 넘어가 그 음절을 거성으로 실현시킨다.

이 고정적 거성이다.

한편, 주격 조사 '-이'가 통합한 경북 방언 '말'의 성조 실현형은 <표 6>과 같다.

	중세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馬	ᄆᆞ리 平去	HL	HL	HL	HL	HL	HL
斗	마리 去去[79]	HH	HH	HH	HH	HH	HH
語	마리 上去	RH	RH	RH	RL	RL	RL

<표 6> '말'의 성조 대응 양상

<표 6>을 살펴보면 중세국어에서 거성으로 나타나는 '말(斗)'은 고조로, 상성으로 나타나는 '말(語)'은 상승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성조가 그대로 경북 방언에 대응한다고는 할 수 없다. '말(馬)'의 성조는 중세국어에서 평성이었으나 경북 방언에서는 고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둘째음절의 성조는 중세국어에서 동일하게 거성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경북 방언에서는 저조, 고조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음절 체언의 성조 실현 양상만 살펴서는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일반적 성조 대응을 제대로 알기 힘든 까닭에 2음절 체언 '하늘(天), 바람(風)/마음(心)[80], 구름(雲), 사람(人)'에 '-이'가 통합했을 때의 성조 실현형을 (2)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하늘(天) : 하ᄂᆞ리[平去去] <월석 2:23a>
구름(雲) : 구루미[去平去] <월석 2:51a>

79) 15세기 문헌에서 '말(斗)'에 조사 '-이'가 결합한 예시는 <남명집언해(南明集諺解)>(1482)의 '말이[去去]'가 유일하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 '-이'는 고정적 거성이므로 '말+-이'의 실현형을 去去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80) '바람'과 '마음'은 중세국어에서 같은 성조형을 가진다. 대구와 청송 지역어 자료에서는 '바람'의 성조형이 제시되어 있으나 문경과 울진 지역어 자료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경과 울진 지역어는 '바람' 대신 '마음'의 성조 실현형을 제시한다.

바람(風)/마음(心) : ᄇᆞᄅᆞ미[平平去] <석상 6:30a>
ᄆᆞᅀᆞ미[平平去] <석상 9:11b>
사람(人) : 사ᄅᆞ미[上平去] <월석 1:9a>

중세국어에서 '하ᄂᆞᆯ'은 平去, '구룸'은 去平으로 나타나며, 'ᄇᆞᄅᆞᆷ'과 'ᄆᆞᅀᆞᆷ'은 平平으로, '사ᄅᆞᆷ'은 上平으로 나타난다. 이에 해당하는 경북 방언의 성조 실현 양상을 함께 제시한 것이 아래의 <표 7>이다.

	중세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天	하ᄂᆞ리 平去去	HLL	HLL	HLL	HLL	HLL	HLL
風/心	ᄇᆞᄅᆞ미 平平去 ᄆᆞᅀᆞ미 平平去	LHL	LHL	LHL	LHL	LHL	LHL
雲	구루미 去平去	HHL	HHL	HHL	HHL	HHL	HHL
人	사ᄅᆞ미 上平去	RHL	RHL	RHL	RLL	RLL	RLL

<표 7> 2음절 체언의 대응 양상

각 음절별 성조 실현을 살펴보면, <표 6>과 마찬가지로 <표 7>에서도 평성, 거성, 상성이 고조, 저조, 상승조에 정연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표 6>과 <표 7>에서 살펴본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음절별 성조 대응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3)과 같다.

(3) 중세국어 : 경북 방언
平 : H, L 去 : L, H 上 : R

(3)에 따르면 평성은 고조와 저조에 대응하고, 거성 역시 고조와 저조에 대응한다. 중세국어에서 상성을 제외한 성조가 경북 방언의 상승조를 제외한 성조에 대응하는 셈이다. 이처럼 음절별로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성조 실현형을 단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정제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鄭然燦(1972)에서는 ‘시소운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중세국어에서는 15세기 후기부터 방점이 소멸하기 직전인 17세기까지 어말평성화가 점점 확산되었는데, 이 어말평성화가 마치 시소가 오르내리는 것과 같은 변화를 겪어 현대의 방언 성조에 이른 것이라고 본 것이다. <표 6>에서 15세기에 平去로 나타나는 ‘말(馬)+-이’는 경북에서 HL로 나타나고 去去로 나타나는 ‘말(斗)+-이’는 HH로, 上去로 나타나는 ‘말(語)+-이’는 경북에서 RH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2음절의 대응에서 중세국어와의 차이가 나타나는 ‘말(馬)’의 경우 어말이 낮아지면서 선행 음절의 성조를 밀어 올렸다고 해도 되고, 거성이 한 음절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去去의 경우 HL이 아닌 HH에 대응되는데, 이 경우를 鄭然燦(1976)에서는 나란히 높던 성조가 어말이 평성화하면서 같이 낮아진 것으로 보았다. 鄭然燦(1972, 1976)은 본고에서 HH로 보고 있는 ‘말(斗)’의 실현형을 LL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설명이 가능해진 것이다.

<표 7>에서 대응을 보인 3음절의 경우로 넘어가면 시소운동의 설명 방식은 더욱 복잡해진다. ‘하늘+-이’는 중세국어의 平去去가 경북 방언에서 HLL로 나타나고 있어 2음절일 때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鄭然燦(1976: 154)에서는 이를 平去去의 去去가 함께 낮아지면서 平을 밀어 올리는 시소운동으로 해석한다. 한편, 중세국어에서 去平去로 실현되는 ‘구름+-이’는 이 논의에서 平去平의 중간 과정을 거쳐 LLL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본고에서 제시한 경북 방언의 성조 실현형인 HHL과는 맞지 않아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이 시점에서 중세국어 성조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바로 중세국어의 성조 체계에서 변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첫 거성이라는 사실이다. 중세국어에서는 한 기식군 안에 첫 거성이 등장하면 나머지 성조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를 金完鎭(1973)에서는 ‘거성불연삼(去聲不連三)’ 규칙으로 설명하였고, 金星奎(1994ㄱ)에서 ‘율동규칙’으로 정리한 바 있다.

去○ → 去去	平去○ → 平去去	LLH○ → LLHH
去○○ → 去平去	平去○○ → 平去平去	LLH○○ → LLHLH
去○○○ → 去去平去	平去○○○ → 平去去平去	LLH○○○ → LLHHLH
去○○○○ → 去平去平去	平去○○○○ → 平去平去平去	

<표 8> 성조의 율동규칙(金星奎 1994ㄱ: 11)
(○: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음절.)

<표 8>은 중세국어의 율동규칙을 간단히 표로 제시한 것이다. 상성은 거성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기식군 안에 첫 상성이 등장할 경우 上을 <표 8>의 去에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중세국어에서 한 기식군 안에 거성이 셋 이상 연속되는 것은 이러한 율동규칙에 의해 저지되며, 평성화하는 음절은 주로 기식군의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다.

중세국어에서 첫 거성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여 <표 6>과 <표 7>의 첫 고조에 주목하면, 중세국어의 거성이 경북 방언에서 한 음절씩 당겨진 것처럼 실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Ramsey(1974)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액센트 추이 규칙(Accent Shift Rule)'로 설명한 바 있다. 현대 함남과 경남 지역의 방언 성조와 중세국어 성조를 대응시켜 보았을 때 함남이 중세국어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함남의 악센트가 경남에서 한 음절씩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이동하는 것은 악센트 '표지'이다.

(4) Ramsey(1974: 108-110)의 음조형 표시 방식

① 음조가 고조에서 저조로 바뀌는 위치에 '로 표지를 표시한다.
② 형태소의 마지막 음절이 높고 토씨가 낮으면 형태소 마지막 음절에 표지를 단다.
③ 형태소의 마지막 음절이 높고 토씨도 높으면 atonic으로 간주하여 표지를 달지 않는다.
④ 다른 토씨와 결합이 가능한 토씨에는 표지를 단다.
⑤ '-처럼, -부터, -같이' 등 다음절 토씨의 경우 변화가 나타나므로 표지를 단다.

(4)의 ①에 의해 표시된 악센트 표지는 “액센트 표지를 왼쪽으로 한 음절 옮긴다.”라는 Ramsey(1974: 116)의 규칙에 의해 한 음절 앞으로 당겨지게 된다. 이 악센트 표지는 음조형 표시 방식 ①에 따르면 고조에서 저조로 떨어지는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중세국어의 ‘말브터[去平去]’가 김해 방언의 ‘말부터[HHL]’에 대응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0음절, 즉 존재하지 않는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pre-accent’를 설정하는 것 역시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표 6>과 <표 7>의 대응에서 거성과 고조의 출현에 주목한다. <표 6>의 平去가 HL에 대응하는 것은 둘째음절이 첫음절로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표 7>의 平去去에서 첫 거성은 둘째음절에 있으므로 경북 방언의 첫음절 고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平平去의 첫 거성은 셋째음절에 있으니 경북 방언의 LHL에서 둘째음절의 고조에 대응하게 된다.

平去去와 HHL의 대응은 <표 7>의 대응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북 방언의 3음절 이상인 어절에서 가장 끝 음절의 성조가 저조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세기 후반 들어 중세국어에서도 어말평성화가 등장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되었고, 경북뿐 아니라 경남이나 함경에서도 끝 음절의 성조가 저조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현상이 특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첫 거성이 첫음절에 나타나는 경우는 위와 같은 대응 방식을 적용시킬 수 없다. 去去와 HH의 대응은 첫 거성이 이미 첫음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동할 음절이 없어 그대로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去平去의 경우 경북 방언에서 RHL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첫 거성이 첫음절에 대응하는 경우는 더 이상 앞으로 이동할 수 없는 첫 거성 대신 뒤의 음절에 나타나는 첫 거성이 한 음절 당겨진 것처럼 대응한다.[81]

81) 김주원(2000: 103)에서는 이를 ‘예기 발음(anticipated pronunciation)’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선조적으로 뒤에서 발음해야 할 것을 미리 발음하는 현상으로, 일본어의 교토방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Ladefoged(1993: 56)의 ‘예기 동시조음(anticipatory coarticulation)’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 6>의 上去는 RH에, <표 7>의 上平去는 RHL에 대응한다. 중세국어에서 상성이 평성과 거성의 조합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李基文(1960) 등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경북 방언에서의 상승조를 단순한 저조와 고조의 연속으로 보기는 힘들다.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송과 울진, 포항 지역어에는 상성 다음에 자동적으로 저조가 등장하는 성조 배열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표 7> '구름+-이'의 성조 실현형인 HHL에서 볼 수 있듯 해당지역의 고조는 고조가 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람+-이'의 성조 실현형인 RLL에서 볼 수 있듯 상승조 뒤에는 고조가 올 수 없다. 이는 경북 방언에서 상승조를 저고복합조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성조소로 보는 의견의 근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정리한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체언 성조 대응표는 <표 9>와 같다.

	중세	경북
2음절	平去	HL
	去去	HH
	上去	RH(L)
3음절	平去去	HLL
	平平去	LHL
	去平去	HHL
	上平去	RH(L)L

<표 9> 체언 성조의 대응

4.1.2. 용언 성조의 대응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체언 성조로 보인 대응 관계는 용언에서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중세국어에서 평성으로 시작하는 어간은 뒤에 나타나는 첫 거성이 한 음절 앞으로 당겨진 것과 같은 대응을 보이며, 첫음절이 거성 또는 상성인 경우는 그 뒤의 거성이 한 음절 당겨진 것과 같은 대응을 보인다.

(5) 잡고[平去] <월석 23:83b>
크고[去去] <석상 6:32b>
굵고[上去] <석상 6:32b>

중세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잡고 平去	HL	HL	HL	HL	HL	HL
크고 去去	HH	HH	HH	HH	HH	HH
굵고 上去	RH	RH	RH	RL	RL	RL

<표 10> 2음절 활용형의 성조 대응 양상

1음절 용언 어간에 '-고'가 결합한 형태인 2음절 활용형의 성조 대응을 살펴보았을 때, 체언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다. 중세국어의 平去는 경북 방언의 HL에 대응하며 去去는 HH에, 上去는 RH(또는 RL)에 대응한다. 이는 3음절 활용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 머그며[平去去] <월석 25:131a>
먹다가[平平去] <석상 9:18b>
수므며[去平去] <원각 상2-2:40b>
업스며[上平去] <몽산 64a>

중세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
머그며 平去去	HLL	HLL	HLL	HLL	HLL	HLL
먹다가 平平去	LHL	LHL	LHL	LHL	LHL	LHL
수므며 去平去	HHL	HHL	HHL	HHL	HHL	HHL
업스며 上平去	RHL	RHL	RHL	RLL	RLL	RLL

<표 11> 3음절 활용형의 성조 대응 양상

<표 11>은 용언의 활용형이 3음절인 경우의 성조 대응 양상을 보인 것이다. <표 7>에서 보인 체언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용언의 활용에서도 거성이 한 음절 앞으로 당겨진 자리에 고조가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성조 대응은 어절성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거성이 한 음절 앞으로 이동한 것과 같다는 규칙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용언 성조형의 모든 대응을 설명해내지 못한다.

(7)

중세	경주	대구	문경	울진	청송	포항
붉더라[82]	발떠라	발뜨라	발떠라	발떠라	발떠라	밝드라
[平去去]	[LHL]	[LHL]	[LHL]	[LHL]	[LHL]	[LHL]

(7)은 중세국어에서 고정적 평성형에 속하는 '붉-(明)'과 경북 방언의 '밝-'이 2음절 자음어미 '-더라/드라'와 결합할 때의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인 것이다. <표 11>과 동일한 대응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중세국어에서 平去去로 나타나는 '붉더라'는 경북지역에서 2음절의 거성이 한 음절 앞으로 당겨지고 마지막 음절이 저조화하여 HLL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7)의 경북 방언에서는 모두 '밝-+-더라'의 성조가 HLL이 아닌 LHL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표 11>의 '먹다가'에 해당하는 성조가 경북 방언에서 동일한 LHL로 나타나나 중세국어 성조가 平平去이므로 일반적인 대응에 어긋나지 않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82) <월석 2:39a>의 예이다.

이처럼 체언과 용언을 통해 보인 일반적인 어절 성조의 대응은 모든 용언 활용형의 성조 실현 양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서는 2장에서 분류한 중세국어 용언 성조형과 3장에서 분류한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을 대응시키되, 이러한 일반적인 대응에 일치하는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유형을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4.2.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비교

앞에서 설정한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 어절 성조형 대응의 기본 원칙은 '첫 거성이 한 음절 앞으로 당겨져 고조로 실현된다.'라는 것이다. 단, 첫음절에 첫 거성(또는 상성)이 위치하는 경우 그 뒤에 오는 첫 거성이 한 음절 앞으로 당겨져 고조로 실현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일반적 원칙에 모든 용언 성조형이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앞서 2장에서 중세국어의 1음절 용언 성조형을 고정적 평성형, 고정적 거성형, 평거 교체형, 고정적 상성형, 상평 교체형, 2음절 평성형으로 분류하였으며 3장에서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을 고정적 고조형, 고저 교체형, 고정적 상승조형, 상고 교체형, 하강조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절에서는 중세국어의 용언 성조형 분류를 기준으로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유형을 대응해나간다. 그 과정에서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대응 유형을 3장의 기본 대응 원칙과 일치하는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누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2.1. 어절 성조형 대응과 일치하는 유형

4.2.1.1. 고정적 거성형의 대응

중세국어에서 고정적 거성을 보이는 어간들은 후행어미와 상관없이 첫음절이 항상 거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2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렇게 중세국어에서 고정적 거성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경북 방언에서도 대개 고정적 고조형에 속해 있다. 고정적 거성형과 고정적 고조형의 활용형 성조 대응을 보이면 아래의 (8)과 같다.

(8)

중세	경북
숨고[去去]	숨꼬[HH]
수머[去去]	수머[HH]
수므며[去平去]	수무먼[HHL]
숨다가[去平去]	숨다가[HHL]
숨더라[去平去]	숨뜨라[HHL]
숨ᄂᆞ니[去平去]	숨는다[HHL]

고정적 거성형의 어간이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성조가 변하지 않고 거성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적 고조형 역시 어간의 성조가 고조로만 나타나고 있다. (8)의 '숨-(隱)'이 '-으며', '-다가' 등과 결합하는 경우 활용형은 3음절이 되는데, 이때 경북 방언의 고조가 중세국어 셋째음절의 거성이 한 음절씩 앞으로 당겨진 것처럼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개음절 어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개음절 어간인 '쓰-'와 '쓰-(또는 '스-')'의 경우를 (9)에서 살펴본다.

(9)

중세	경북
쁘고[去去]	쓰고[HH]
뻐[去]	서[H]
쁘며[去去]	시머[HH]
쁘다가[去平去]	쓰다가[HHL]
쁘더라[去平去]	스더라[HHL]

(9)의 '뻐'는 어간 '쁘-'에 '-어'가 결합한 것으로, 어간의 '으'가 탈락하면서 음절수가 줄어들었다. 이 '뻐'는 중세국어에서 거성, 경북 방언에서 고조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북 방언에서는 지역에 따라 'ㅅ'와 'ㅆ'의 대립이 사라지거나 기저형의 모음이 '이'로 나타나는 등 중세국어 '쁘-(用)'에 해당하는 어형이 다양하다. 대구 지역어에서는 '쓰-' 또는 '스-'가[83], 문경과 울진 지역어에서는 '쓰-'와 '씨-'가 모두 나타나며, 청송과 포항, 경주 지역어에서는 '시-'가 나타난다.

이처럼 어형은 다양하지만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모든 지역에서 성조형은 (9)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대응을 보이는 중세국어의 고정적 거성 어간과 경북 방언의 고정적 고조 어간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이 (10)이다.

(10) 고정적 거성형 : 고정적 고조형

ᄀᆞᆯ-:갈-(摩), 들-:들-(入), ᄃᆞᆯ-:달-(掛), 뷔-:비-(切)-, ᄲᅴ-:찌-/쩌-(蒸), ᄡᅡ-:싸-/사-(包/泄), 쁘-:쓰-/씨-/스-/시-(用), ᄠᅳ-:타-(乘), ᄭᅩ-:꼬-/꾸-/꽂-(索), ᄭᅮ-:꾸-/꼬-(借/夢), ᄯᅳ-:끄-(滅), ᄌᆞᆯ-:깔-(席), ᄭᅵ-:깨-(覺), 숨-:숨-/숨ㅁ-(隱), 쓰-:쓰-/씨-/스-/시-(書), ᄋᆞᆷ-:옳-(是), ᄎᆞ-:차-(寒/蹴/滿), 춤-:참-(忍), ᄎᆞᄌᆞ-:찾-(探), 츠-:추-/처-/치-(舞), 티-:치-/처-(打), 칩-:춥-(寒), 크-:크-(大), ᄐᆞ-:타-(燃/昇), 프-:피-(開花), 프-:푸-(汲), ᄑᆞ-:파-(掘), ᄑᆞᆯ-:팔-(賣),

83) 대구는 7-80대에서 'ㅅ'과 'ㅆ'의 대립이 없는 것으로 김차균(1994ㄴ)에서 보고하였으나, 직접 조사한 결과 5-60대에서는 'ㅅ'과 'ㅆ'의 대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히-:히-(白) 등

(10)에 제시한 어간 중 경북 방언에서의 성조 실현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 우선, '숨-(隱)'은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어떠한 어미와 결합해도 어간의 성조가 고조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구・문경・울진 지역어에서는 상승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1) 숨꼬[RH]
수무먼[HHL]
수머도/숨마도(울)[HHL]
숨뜨라[RHL]

대구에서는 '참(忍)-'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84] 어간에 매개모음어미나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는 HHL로 실현되나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상승조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북 방언에 국한된 것이 아닌 듯하다. 김성규(2006)에서는 음장의 일반적인 변화가 장음에서 단음으로 발음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비하여 '감-, 숨-, 참-, 품(抱)-' 등은 자음 앞에서 장음성을 획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중세국어에서 상평 교체형에 속하는 '검-(黑), 넘-(越), 곪-(膿)' 등도 자음어미 앞에서 장음으로 나타나므로 'ㅁ'으로 끝나는 1음절 용언 어간 전체가 장단 교체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정적 거성형의 'ㅁ' 말음 어간이 유추를 통해 장단 교체형으로 정착된 것으로, 경북 방언의 (11)과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해석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프-'의 경우 중세국어에서 '開花'와 '汲'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동음이의어라기보다는 다의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프-(開花)'와 '프-(汲)'은 현대

84) 제보자에게 '숨-'과 '참-'을 발음했을 때의 인상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제보자는 '숨-'과 '참-'이 모두 길게 발음되지만 '참-'이 '숨-'보다 짧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숨-'의 어간 모음이 원순모음인 까닭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경북 방언에서 ‘피-(開花)’와 ‘푸-(汲)’로 어간의 모음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두 용언의 성조형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2)

푸-(汲)	피-(開花)
푸고[HH]	피고[HH]
푸이께[HHL]	피이께[HHL]
퍼서[HH]	피어서[HHL]
푸디만[HHL]	피더라[HHL]

그러나 ‘피-’는 문경과 울진 지역어에서 일부 고저 교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피-’와 어형이 같고 의미상으로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성조형은 고저 교체형인 ‘피-(伸)’에 유추된 결과로 보인다.

4.2.1.2. 고정적 상성형의 대응

중세국어에서 상성은 거성과 마찬가지로 행동하므로 고정적 상성형은 고정적 거성형과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중세국어의 고정적 상성형은 대개 경북 방언의 고정적 상승조형에 대응하고 있다. 고정적 상성형과 고정적 상승조형의 대응 역시 3장에서 보인 일반적 대응 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을 아래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중세	경주/대구/문경	청송/울진/포항
업고[上去]	억꼬[RH]	억꼬[RL]
업서[上去]	업서/업써[RH]	업서/업싸[RL]
업스며[上平去]	업시머/업씨머[RHL]	업씨이[RLL]
업더라[上平去]	업떠라/업뜨라[RHL]	업떠라[RLL]
업ᄂᆞ니[上平去]	엄넝가/엄능가[RHL]	엄넝가[RLL]

청송・울진・포항 지역어에서는 상승조 뒤에 고조가 아닌 저조가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동해안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승조가 선행하는 환경에서 성조 배열 제약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중세국어의 上去는 경북 방언에서도 그대로 RH에, 上平去는 RHL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13), (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정적 거성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성이 첫음절에 올 경우 뒤의 음절의 거성을 한 음절 앞으로 당긴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14)

중세	경북
됴코[上去]	조코[RH]
됴하[上去]	조아[RH]
됴ᄒᆞ며[上平去]	조우이[RHL]
됴터라[上平去]	조트라[RHL]

'좋-'의 경우 경북 방언에서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조와도'와 같은 형태가 확인된다. 문경과 울진에서는 '조와도'라는 형태와 '조아도'라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들의 성조형은 모두 RHL(또는 RLL)형이다.[85]

'쉽-(易)'의 어간 말음은 자음어미 앞에서 'ㅂ'으로, 매개모음어미나 모음어미 앞에서는 'ㅸ'으로 실현된다. 이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경주와 포항 지역어에서 단일기저형 '숩-'으로, 청송, 문경, 울진에서는 '수{ㅂ-우}'의 복수기저형으로, 대구에서는 '시{ㅂ-우}'의 복수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어간이다. 지역에 따라 활용형의 차이는 있으나 성조 실현 양상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85) '놓-'에 모음어미가 결합한 형태인 '노아도'가 흔히 '놔도~나도'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좋-'은 '*좌도'와 같이 활용되지 않는데, 林錫圭(2007: 150)에서는 '좋-'이 '놓-'과 같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좋-'이 형용사이기 때문이거나 어간의 성조가 R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

(15)

중세	경주	대구	청송/문경/울진
쉽고[上去]	숩꼬[RH]	십꼬[RH]	숩꼬[RH(RL)]
쉬버[上去]	수버[RH]	시워[RH]	수와도~수아도 [RHL(RLL)]
쉬브니[上平去]	수부이[RHL]	시우이[RHL]	
쉽더라[上平去]	숩떠라[RHL]	십뜨라[RHL]	

고정적 상성형과 고정적 상승조형 어간의 대응을 정리하면 (16)과 같다.

(16) 고정적 상성형 : 고정적 상승조형

곱-:곱-(麗), 굵-:굵-(大), 둏-:좋-(好), 쉳-:숩-/십-(易), 얻-:얻-(得), 셟-:섧-[86](悲), 없-:없-(無), 젹-:적-(少) 등

중세국어에서 고정적 상성형에 속했으나 경북 방언에서는 고정적 상승조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뵈-(視)'와 '니-(蒼)'는 중세국어에서 고정적 상성형에 속했으나 경북 방언에서는 하강조형에 속하는 예이다. 15세기 문헌에서 '뵈여도'를 찾지 못하였으나 '뵈여'가 上去로 나타나므로 그 뒤에 '도'가 붙을 시 율동 규칙이 적용되어 上平去로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17)

중세	경북
뵈오[上去]	비고[FL]
뵈며[上去]	비머[FL]
뵈여[上去]	비도[FL]
뵈ᄂᆞ다[上平去]	빈다[FL]

(17)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는 고정적 상성형인 '뵈-'가 경북 방언에

86) 청송과 대구에서만 확인된 어형이다. 청송 지역어에서 'ㅐ'말음 어간은 모두 상승조이다(김세환 2012: 106).

서는 하강조 ‘비-’로 나타나고 있다. 중세국어 ‘뵈-’의 형태를 보았을 때 ‘보-(見)’에 ‘-이-’가 결합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8) ㄱ. 戴 닐 ᄃᆡ <왜어-하: 38>
ㄴ. 병뷔 노복으로 누옥을 니이게 ᄒᆞ여 <명주 1: 81>

현대 경북 방언의 ‘이-’가 접미사 ‘-이-’를 포함한 형태라고 할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이-(葺)’가 ‘이-(戴)’에서 의미가 유추되어 ‘지붕이 풀을 머리에 이게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접미사 ‘-이-’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붕을)이-(葺)’에 해당하는 중세 어형은 ‘니-’로, ‘(짐을 머리에)이-(戴)’에 해당하는 중세 어형인 ‘이-’와는 성조뿐만 아니라 어형도 다르다. 따라서 현대 경북 방언의 ‘이-(葺)’가 ‘지붕이 풀을 머리에 이게 만들다’는 의미에서 ‘이-(戴)’에 ‘-이-’가 결합한 형태로 파생된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다만 18세기 문헌인 <왜어유해(倭語類解)>에서 (18ㄱ)과 같이 ‘이-(戴)’를 ‘니-(葺)’로 오기한 예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와 ‘니-’가 후대에서 혼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이것이 ‘이-’와 ‘니-’의 혼용을 보이는 유일한 예이고, ‘니-(葺)’가 ‘이-(戴)’로 오기된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니-(葺)’에 ‘-이-’가 바로 결합한 형태가 현대 경북 방언에서 하강조를 보이는 ‘이-’의 소급형이라는 것이다. (18ㄴ)은 고전소설 <명주보월빙(明紬寶月聘)>의 예인데, 이때의 ‘니이-’는 이미 그 자체로 사동의 접미사인 ‘-이-’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뒤에 ‘-게 ᄒᆞ-’가 덧붙어 있다. 사동을 나타내는 요소가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는 ‘니이-’가 ‘니-(葺)’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니-(葺)’의 의미가 ‘이-(戴)’에 유추되는 과정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설이 더욱 신빙성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 또한 유일예이므로 더 면밀하게 예를 살필 필요가 있다.

김세환(2012ㄱ: 154-155)에서는 청송 지역어의 하강조에 대해 상승조가 변화하여 형성된 것, 음절이 축약되면서 형성된 것, 활용형의 재분석에서 형성된 것, 이유를 알 수 없는(복합적인) 요인이 의하여 형성된 것이 있다고 하였다. 김세환(2012ㄴ: 8)에 제시된 1음절 하강조 어간의 목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간들은 모두 개음절이고 특히 중세국어 상성에 대응되는 어간의 경우 모두 '이' 또는 '에(E)'로 끝난다. 다른 지역에서도 하강조인 어간은 '비-'와 '이-' 외에도 모두 '이' 또는 '에(E)'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강조는 사동사 또는 피동사로 파생된 용언의 2음절에서 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강조로 나타나는 어간은 기원적으로 '이'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먼저 변화하고 이러한 어간의 성조에 이끌려 다른 어간들도 하강조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4.2.1.3. 상평 교체형의 대응

상평 교체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후행어미가 자음어미일 때는 첫음절이 상성으로 나타나고, 모음어미일 때는 평성으로 나타난다. 경북 방언에서는 상고 교체형이 이와 유사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 상평 교체형에 속하는 용언 어간은 경북 방언과 대개 (19)와 같이 대응된다.

(19)

중세	경북
알오[上去]	알고[RH]
아라[平去]	아라[HL]
알며[上去]	알머[RH]
아다가[上平去]	알다가[RHL]
아더라[上平去]	알더라[RHL]
아ᄂᆞ니[上平去]	안다[RH]

上去로 나타나는 ‘알오, 알며’는 그대로 RH에 대응한다.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의 성조가 평성으로 실현된 ‘아라’는 경북 방언에서 HL로 나타나 첫 거성이 한 음절 당겨진 위치에 고조가 대응하고 있다. 3음절의 ‘아다가, 아더라’ 역시 중세국어에서 上平去로 나타나는 것이 경북 방언에서는 RHL로 실현되고 있어 셋째음절의 거성이 한 음절 당겨진 것과 같은 대응을 보인다. 고정적 상승조와 성조 활용 양상은 다르지만 두 유형 모두 성조 대응 유형에 있어서는 3장에서 밝힌 일반적 원칙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20)

중세	경북
ᄇᆞᇫ고[上去]	발꼬[RH]
ᄇᆞᆯ바[平去]	발바[HL]
ᄇᆞᆯᄫᅥ[平去去]	발부머[HLL]
ᄇᆞᇫ더라[上平去]	발떠라[RHL]
ᄇᆞᇫᄂᆞ다[上平去]	발른다[RHL]

(20)은 어간의 말음이 자음군인 ‘ᄇᆞᇬ-(踏)’의 예이다. ‘ᄇᆞᇬ-’은 ‘알-’과 달리 매개모음어미와 모음어미가 결합하였을 때 어말자음군의 ‘ᄫ’이 어미의 초성으로 옮겨가므로 매개모음어미가 결합할 때 HLL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19)와 다르다. 하지만 (19)와 마찬가지로 (20)의 예도 성조형의 일반적 대응 원칙에 따르고 있다. 첫 거성이 한 음절 왼쪽으로 당겨진 위치에 경북 방언의 고조가 대응하고 있으며, 어말의 고조는 저조로 실현되어 있다.

중세국어의 상평 교체형은 대부분 경북 방언의 상고 교체형에 대응한다. 그 목록을 (21)에 제시한다.

(21) 상평 교체형 : 상고 교체형

갈-:갈-(耕), 걷-[87]:걿-(步), 걸-:걸-(掛), 굶-:굶-(餓), 굻-:꿇-/꿇-(炙), 긷

87) ‘거두다, 걷히다’라는 의미의 ‘걷-’은 평성이다.

-(汲), 길-:길-(長), 남-:넘-(越), 넘-:넘-(過), 놀-:놀-(遊), 닐-:일-(興), 닛-:잇-/이숳-[88](繼), 담-:담-(球), 떨-:떨-(振), 덥-:덥-(暑), 돌-:돌-(回), 돕-:돕~도우-(助), 멀-:멀-(遠), 몰-:몰-(驅), 묻-:뭃-(問), 밀-:밀-(推), 벼-:비-(枕), 불-:불-(吹), 빌-:빌-(祈), 붋-:밟-(踏), 살-:살-(生), 삼-:삼-(스승으로), 싣-:싫-(載), 안-:안-(抱), 알-:알-(知), 열-:열-(開), 울-:울-(泣), 웃-:웃-/윗-(笑), 짓-:짛-(作) 등

앞서 3장에서 상고 교체형의 하위분류로 RHのHL형과 RHのHH형을 제시한 바 있다. 상고 교체형에 속하는 어간은 대개 RHのHL형에 해당하지만 몇몇 어간은 RHのHH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갈-(耕), 몰-(驅)'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22)

중세	대구	문경	울진	청송	포항
갈오[上去]	갈고[RH]	갈고[RH]	갈고[RL]	가고[RL]	갈고[RL]
가라[平去]	가라[HL]	가라[HH]	가라[HH]	가러[HL]	가라[HL]
갈며[上去]	갈믄[RH]	갈머[RH]	갈머[RL]	가머[RL]	갈머[RL]
가더라[上平去]	갈드라 [RHL]	갈더라 [RHL]	갈더라 [RLL]	가드라 [RLL]	가드라 [RLL]

활용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주 지역어를 제외하고 '갈-'은 (22)와 같이 문경과 울진 지역어에서 RH(또는 RL)のHH로로 나타나는 반면, 여타 지역어에서는 RHのHL로만 나타난다. 심지어 RH(또는 RL)のHH형으로 나타나는 문경과 울진 지역어에서조차 고정적 고조형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함께 보고되고 있어 이 RHのHH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인 유형은 아닌 듯하다.

林錫圭(2007: 74)에서는 '몰-(驅)'의 성조형이 '몰고[RH], 몰아[HL]'과 같이 활용되는 것을 상고 교체형 어간에 유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성조 실현 양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平去는 HL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갈-'과 '몰-'이 고정적 고조형에 속하는 어간처럼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

88) 문경과 울진에서는 '잇-'과 함께 '이숳-'도 사용되며, 청송에서는 '이숳-'만 나타난다. '이숳-'의 성조는 LH이다.

면 그와 달리 ‘숨-(隱)’ 등의 고정적 고조형 어간에 유추된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중세국어의 ‘쉬-(休/吸)’의 경북 방언형에 해당하는 ‘시-’는 문경과 울진 지역어에서 하강조형과 상고 교체형으로 나타난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세-(强)’에 해당하는 ‘시-’ 또는 ‘씨-’는 상고 교체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경북 방언의 하강조형 역시 RH∽HH형처럼 상고 교체형에서 발달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평 교체형 : 상고 교체형’의 대응에서 가장 예외적인 경우는 ‘검-(黑)’이다. ‘검-’은 대구와 청송, 포항 지역어에서 ‘껌-’, 문경 지역어에서 ‘검-’과 껌-’, 울진 지역어에서 ‘껌-’과 깜-’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그 성조형이 대구・문경・울진 지역어에서는 고저 교체형으로 나타나고 청송에서만 상고 교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89] 상고 교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고저 교체형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더 많은데, 초성의 경음화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90] 경음을 발음할 때 생기는 성대 긴장이 고조(high pitch)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黑)’은 색채어라는 특징이 있고 색채어가 아닌 어간 중 이와 같은 실현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간 초성의 경음화와 성조의 관계에 대해 섣불리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4.2.2. 어절 성조형 대응과 일치하지 않는 유형

4.2.2.1. 고정적 평성형의 대응

중세국어의 고정적 평성형은 경북 방언에서 대부분 고저 교체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유형의 어간들은 고정적 거성형, 고정적 상성형과 다르게 앞에서 설정

89) 영주지역어에서 ‘검-’은 상고 교체형으로 나타난다(林錫圭 2007: 73).

90) 조사 과정에서 대구 지역어 화자에게 ‘검-’과 ‘껌-’을 각각 활용하여 발음하게 해 본 결과, ‘검-’은 상고 교체형으로, ‘껌-’은 고저 교체형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일반적인 대응 원칙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23)

중세	경북
먹고[平去]	먹꼬[HL]
머거[平去]	머거[HL]
머그며[平去去]	머그이[HLL]
먹다가[平平去]	먹다가[LHL]
먹더라[平去去]	묵뜨라[LHL]
먹ᄂᆞ니[平平去]	멍는다[LHL]

(23)의 대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간이 '-더-'와 결합했을 때이다. 2음절 활용형인 '먹-+-고'와 '먹-+-어'의 경우 중세국어에서 平去로 나타나므로 둘째 음절의 거성이 한 음절 앞으로 온 것처럼 경북 방언에서 첫음절 고조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먹-+-다가'와 '먹-+-ᄂᆞ니'의 경우도 동일하다. '먹-+-으며' 또한 앞에서 설정한 대응 규칙에 의해 둘째음절의 거성이 한 음절 앞으로 당겨지고 어절의 마지막 음절이 저조화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먹-+-더라'는 중세국어에서 平去去로 나타나므로 둘째음절의 거성이 한 음절 앞으로 오고 마지막 음절이 저조로 실현되어 HLL로 나타나야 하나 (23)에서 드러나듯이 LHL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두 가지 설명 방법을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선어말어미 '-더-'의 특수성으로 보는 것이다. 중세국어의 '-더-'는 '-ᄂᆞ-, -거-' 등과 함께 강어미로 분류되지만 '-ᄂᆞ-'와 '-거-'의 성조가 유동적인 것과 달리 고정적 거성이다. 중세국어에서 '-ᄂᆞ-'나 '-거-'와 다르게 행동한 것처럼 경북 방언에서도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의 성조 실현 양상이 다른 2음절 자음어미의 성조 실현 양상에 유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3장에서 제시한 (9)의 예를 보면 경북 방언에서 2음절 자음어미는 '각꾸로[LHL], 감는다[LHL], 갑뜨라[LHL]'로 모두 동일한 성

조 실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는 이러한 다른 2음절 자음어미의 성조 실현 양상에 유추되어 LHL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뿐 아니라, '-는/넌, -던' 등의 1음절 자음어미도 마찬가지이다. 유추로 이 현상을 해석한다면 2음절 자음어미가 아닌, 다른 강어미 계열에 유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 문경·울진 지역어에서 어간 성조를 변동시키는 어미(林錫圭 2007: 95-96)
ㄱ. 1음절 : 넌, 던, 디, 지(부사형 어미)
ㄴ. 2음절 : 거던~거덩, 거라, 구로/거로[91], 기다(기에), 넝갑, 넌다(꼬)~넌데이, 넌지~넝가, 더라, 던지~덩가(~던동~던도[92]), 두룩
ㄷ. 3음절 : 심미까, 니라꼬~너라꼬

(24)는 林錫圭(2007)에서 제시한 문경 지역어와 울진 지역어의 어미 목록 중 어간의 성조를 변동시키는 것들만 모아 음절수별로 재배열한 것이다. 이 목록을 살펴보면 고저 교체형 어간의 성조를 저조로 변동시키는 어미는 기원적으로 '-ᄂᆞ-, -더-, -거-'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북 방언에서는 강어미들의 성조가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중세	경북
뛰오[平去]	띠고[HL]
뛰여[平去]	띠어서[HLL]
뛰며[平去]	띠면[HL]
뛰더라[平去去]	띠더라[LHL]

91) 울진에서는 '거로'로 나타난다.
92) '던동, 던도'는 울진에서만 쓰인다.

(25)는 개음절 어간인 ‘뛰-(躍)’의 예이다. (23)과 마찬가지로 ‘-더-’의 결합형을 제외한 다른 경우는 일반적 대응 원칙이 적용된다. ‘뛰-’는 청송 지역어에서 ‘띠-’와 ‘뛰-’를 모두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고, 다른 다섯 지역어에서는 단모음 ‘띠-’로만 나타나므로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띠-’에 ‘-아도’가 결합한 활용형 ‘띠도’는 FL로 실현되는데, 이는 HLL의 앞 HL이 축약된 것으로 이해된다.

(26)은 고정적 평성형과 고저 교체형이 대응하는 어간을 정리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고정적 평성형에 속하는 어간 중 경북 방언에서 고저 교체형이 아닌 다른 유형에 속해 있는 경우는 없다.

(26) 고정적 평성형 : 고저 교체형

갉-:깎-(削), 갚-:갚-(報), 겪-:꺾-(折), 곧-:곧-(直), 곶-:꽂-(揷), 굳-:굳-(硬), 녹-:녹-(溶), 늙-:늙-(老), 늦-:늦-(遲), 닉-:익-(熟), 닑-:읽-(讀), 닙-:입-(着), 닞-(忘), 놀-:날-(飛), 닫-:닫-(閉), 들-:들-(擧), 막-:막-(防), 밍-:매-(結), 먹-:먹-/묵-(食), 묻-:묻-(埋), 믈-:물-(咬), 믿-:믿-(信), 밝-:맑-(淸), 벗-:벗-(脫), 븥-:붙-(附), 븕-:밝-(明), 뿌-:띠-(躍), 석-:썩-(腐), 섞-:섞-(雜), 앓-:앓-(痛), 잃-:잃-(失), 잡-:잡-(捕), 좁-:좁-/쫍-(狹), 좇-:쫓-(追), 죽-:죽-(死), 즐-:질-(泥), 흩-:흩-(散) 등

4.2.2.2. 평거 교체형의 대응

2장에서 분류한 경북 방언의 1음절 용언 성조형을 살펴보면 고정적 고조형과 고저 교체형은 대개 ‘-고’와의 활용 양상만 보아도 어느 쪽에 속하는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고’와의 활용형에서 성조가 HH로 나타나면 고정적 고조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HL로 나타나면 고저 교체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去), 서-(立)’ 등 중세국어의 평거 교체형에 해당하는 경북 방언 어간들은 2장에서 제시한 어간 성조형 분류 중 확실히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단정

할 수 없다. 이러한 어간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 단언할 수 없는 것은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들이 다음과 같은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27)

중세	경북
가고[平去]	가고[HL]
가아[去去]	가서[HH]
가며[平去]	가머[HL]
가던[去去]	가던[HH~LH]
가더니[去平去]	가드나[HHL~LHL]

(27)은 대구, 문경, 울진 지역어의 예이다. 이와 같은 성조 실현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경북 방언에서의 '가-'를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음소상으로는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성조상으로는 복수기저형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숙희(2008)에서는 이러한 용언의 성조 변동 양상은 음운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산발적인 것으로 보았다.

'첫 거성을 앞으로 한 음절 당긴 자리에 고조가 대응한다. 단, 첫 거성이 첫음절에 나타나는 경우 그 뒤의 첫 거성을 한 음절 당긴 자리에 고조가 대응한다.'라는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어절 성조형 대응 규칙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고'나 '가-+-으며'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HH와 HHL로 나타나는 '가-+-던'과 '가-+-더니(나)'도 역시 대응 규칙에 맞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될 만한 형태는 '가-+-던'의 LH와 '가+-더니(나)'의 LHL이 될 것이다. 명령형 어미 '-아라'가 '가-'에 결합한 형태인 '가라'의 성조 실현 또한 문제가 된다. '가서'가 HH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가라'는 RH로 나타나기 때문이다.[93] 중세국어에서 '가라'가 平去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93) 林錫圭(1999: 76), 유필재(2001ㄱ: 14) 등에서도 다른 '-아(X)'계 어간과 '-아라'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중세국어의 '가라'가 '가-'에 '-ᄋᆞ라'가 결합한 형태인 것과 달리 현대국어의 '가라'는 '가-'에 '-거-'의 이형태인 '-아-'가 포함되어 있는 '-아라'가 결합한 것이다.

때 이러한 대응 역시 일반적인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는 어간을 굳이 분류한다면 고저 교체형, 고정적 고조형, 상승조형의 복합 성조형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27)과 같은 성조 실현형 대응을 보이는 어간 목록은 다음과 같다.

(28) 평거 교체형 : 고저 교체형∽고정적 고조형∽고정적 상승조형
가-:가-(去), 나-:나-(出), 누-:누-(便), 두-:두-(置), 보-:보-(見), 사-:사-(買), 셔-:서-/스-(立), 오-:오-(來), 자-:자-(寢), 주-:주-(與), ᄒᆞ-:하-(爲)

한편, 중세국어의 평거 교체형에 속하는 어간 중 '지-(負), 쏘-(射), 혀-(燈)'는 고정적 고조형으로 나타난다. '지-'는 지역에 따라, '쏘-'와 '혀-'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고정적 고조형의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는데, '지-'의 경우 경구개파찰음을 초성에 가지는 '찌-'나 '치-'[94]가 모두 고정적 고조형이므로 이에 유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9)

중세	경주	대구	문경	울진	청송
쏘고[平去]	수고[HH]	쏘고[HH]	쏘고[HH]	쑤고[HH]	수고[HH]
쏘니[平去]	수머[HH]	쏘이[HH]	쏘이[HH]		수머[HH]
쏘아도[去平去]	소도[RH]	쏘아서 [HHL]	싸도[HH]	쏘도[HH]	솨도[HH] 사도[HH]
쏘더라[去平去]	수더라 [HHL]	쏘드라 [HHL]			수더라 [HHL]

(29)는 '쏘-(射)'의 성조 실현 양상을 지역별로 보인 것이다. 중세국어의 '쏘-'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쏘-, 쑤-, 수-'로 다양하지만 어떤 어미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의 성조가 고조로 고정되어 있다. 경주 지역어의 '소도[RH]'는 성조 축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울진 지역어의 '쏘도'처럼 HH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당히 특이한 형태이다.

94) 문경 지역어에서는 모두 '저-, 쩌-, 처-'로 재구조화되었다.

‘혀-(燈)’에 해당하는 어형도 ‘켜-, 케-, 키-, 쓰-, 혀-, 씨-, 시-’ 등 다양한데, 어간의 성조는 모두 고정적 고조형으로 나타난다. 다만, ‘혀-’를 선대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어형과 ‘혀-’를 선대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어형의 성조에 다소 차이가 보인다.

중세국어의 ‘쏘-(射)’와 ‘혀-(燈)’는 어간의 초성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고정적 거성형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고정적 거성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대개 초성이 어두자음군이거나 격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쏘-’와 ‘혀-’는 (29)와 같이 평거 교체형의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어간들이 경북 방언에서 고정적 고조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쏘-’나 ‘혀-’가 기원적으로 고정적 거성형에 속하는 어간들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중세국어 시기에 평거 교체형으로 실현되었을 가능성과,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평거 교체형 어간들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경북 방언에서는 고정적 고조형과 비슷한 음절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유추되어 고정적 고조형으로 실현되는 것일 가능성을 모두 생각해 보게 한다. 15세기 이전 시기의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후자 쪽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한다.

5. 결론

5.1. 요약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본고는 현대 경북 방언 1음절 용언 성조형을 분류하고, 그것이 중세국어 1음절 용언의 성조형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밝히고자 한 것이다. 경북 방언은 같은 동남방언에 속하는 경남 방언과 달리 상승조를 가지는 성조 체계이고,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중세국어와의 대응을 보이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북 방언의 경계 설정, 하위 방언권 설정에 대한 기간 논의를 바탕으로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의 여섯 개 지역어를 선정하여 경북 방언 1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중세국어의 1음절 용언 어간 성조형을 고정적 평성형, 고정적 거성형, 평거 교체형, 고정적 상성형, 상평 교체형으로 분류하였다. '고정적'이 앞에 붙은 유형은 후행어미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변동하지 않는 성조형이고, '교체형'이 뒤에 붙은 유형은 뒤에 오는 어미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평성과 거성, 상성과 평성으로 교체되는 유형이다. 이처럼 각 유형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간 성조의 변동 양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3장에서는 경북 방언의 1음절 용언 어간 성조형을 고정적 고조형, 고저 교체형, 고정적 상승조형, 상고 교체형, 하강조형으로 나누었다. 이 중 상고 교체형의 하위분류인 RH∽HH형과 하강조형은 다른 성조형에서 유추되거나 음절의 축약으로 형성된 것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유형으로 보았다.

울진 지역어와 포항 지역어는 崔明玉(1994)의 경북 중동동부 방언, 정철(1997)의 동해안 지역어에 속한다. 성조에 있어서도 이 두 지역어는 R 뒤에 자동적으로 L이 오는 성조 배열 제약을 공통적으로 가진다. 청송 지역어의 경우 지리적으로 동해안과 인접한 지역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R 뒤에 항상 L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송 지역어가 인접한 동해안 지역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성조 측면에 있어서 경주, 대구, 문경 지역어와 청송, 울진, 포항 지역어의 사이에는 방언 경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장에서는 우선,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일반적인 어절 성조형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체언의 경우와 용언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세국어와 경북 방언의 어절 성조형은 대체적으로 중세국어의 어절 성조에서 첫 거성이 등장하는 위치의 한 음절 앞에 경북 방언의 고조가 대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단, 첫음절에 거성(또는 상성)이 오는 경우 그 다음 거성을 앞으로 한 음절 옮긴 위치에 경북 방언의 고조가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대응은 '예기 발음(anticipated pronunci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원칙과 일치하는 유형으로는 고정적 거성형과 고정적 고조형, 고정적 상성형과 고정적 상승조형, 상평 교체형과 상거 교체형의 대응이 있다. 이 중 '비-(視)'와 '이-(蒼)'는 중세국어에서 고정적 상성형인 '뵈-(視)'와 '니-(蒼)'였으나 경북 방언에서는 하강조형으로 나타나는 예로, 본고에서는 경북 방언의 '비-'와 '이-'가 기원적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고정적 평성형과 고저 교체형은 일반적인 성조 대응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유형이다. 어간에 '-더-'가 통합하는 경우 '먹더라[平去去](중세), 묵뜨라[LHL](경북)'과 같이 둘째 음절의 去가 첫 음절의 H와 대응하지 않는다. 중세국어에서 '-더-'는 다른 강어미와 다르게 고정적 거성이었으나 현대 경북 방언에서는 다른 강어미와 마찬가지로 성조 패턴이 단순화한 것으로 보았다. 평거 교체형에 속하는 어간들도 고정적 평성형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성조 대응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러한 어간들은 경북 방언에서 하나의 성조형에 속하지 않고 고정적 고조형, 고저 교체형, 고정적 상승조형의 성조 실현 양상을 활용 패러다임 안에 모두 가진다. 중세국어 '쏘-'나 '혀-(燈)'에 해당하는 경북 방언의 성조는 모두 고정적 고조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정적 거성형의 어간 초성이 자음군이거나 격음인 것에 유추되어 현대에 고정적 거성형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5.2. 남은 문제

중세국어에서는 분명하게 방점으로 표기되었던 성조가 어째서 중부방언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는지, 중세국어의 성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대 방언의 성조로 변하였는지는 여전히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이다. 심지어 崔明玉(1999: 555-6)에서는 현대국어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의 언어가 아직 성조를 가지고 있고, 성조는 한두 세기 만에 쉬이 음장으로 변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현재의 음장언어 지역의 언어가 처음부터 성조언어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입증해줄 수 있는, 당시의 동남방언 성조를 방점 표기로 드러낸 중세국어 문헌자료를 찾지 못하였고 <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95](1519)나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1518), <정속언해(正俗諺解)>(1518)와 같이 경상도에서 간행되어 당시 동남방언의 성조를 단편적으로나마 알려주는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않은데다가 과도교정 등 중앙어를 의식한 예가 나타나므로 의미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1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형에 한정하여 논의하였기에 경북 각 지역에 있는 특수한 율동규칙이나 성조 배열 제약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언급한 동해안 지역어의 상승조 뒤에 항상 저조가 오는 성조 배열 제약 외에도 문경을 포함한 경북 서부 지역어에서는 저조로 시작하는 경우 끝에서 둘째 음절의 위치에 고조가 오는 성조 배열 제약이 있다.[96] 성조방언의 전체적인 실현 양상을 관찰하였을 때 이렇게 하위방언권에 따라 특수한 성조

95) <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는 경상도에서 간행된 존경각본(尊經閣本, 1518)과 찬집청에서 간행된 화산문고본(華山文庫本, 1519), 교서관에서 간행된 일석본(一石本, 1574)이 있다. 같은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을 언해하였으나 간행지가 다르고 나타나는 어형이나 성조형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씨향약언해>의 성조에 대해서는 金星奎(1994ㄴ)에서 다룬 바 있다.

96) 林錫圭(2007: 54)에서는 H_1을 설정하는 근거로 이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체언 '정지(부엌)'는 '정지버터[LLHL]', '정지버터도[LLLHL]', '정지버터라도[LLLLHL]'와 같은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인다.

배열제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김주원(2000)에서 시도된 바 있듯 성조방언의 전반적인 조망이 이루어져 각 지역의 성조를 유형으로 구분하여 도식화할 수 있다면 연구자들은 물론 언중에게도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姜英淑(2009), 韓·日両言語におけるアクセント核と語声調, ≪日語日文學≫ 44, 5-21.

고영근(2004), ≪표준 중세국어문법론≫(개정판), 집문당.

郭忠求(1980), 十八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43.

郭忠求(1991ㄱ), 咸鏡北道 六鎭方言의 音韻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郭忠求(1991ㄴ), 咸北 吉州地域語 聲調의 上昇調에 대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252-277.

郭忠求(1994),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20世紀 러시아의 Kazan에서 刊行된 文獻資料에 依한≫(國語學叢書 20), 太學社.

郭忠求(2005), 육진방언의 음운변화: 20세기초로부터 1세기 동안의 변화, ≪震檀學報≫ 100, 183-220.

구본관(1996), 중세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56-113.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國語學叢書 30), 太學社.

구현옥(2003), 국어 성조 기술 방법 비교 연구, ≪한글≫ 260, 5-40.

국립국어원(2009), 디지털 언어지도 시스템[CD].

김경아(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國語學叢書 38), 太學社.

김덕호(1992), 경북 상주지역어의 음운 연구, ≪문학과 언어≫ 13-1, 29-50.

김무식(1999), 경북방언 용언의 성조형, ≪문학과 언어≫ 21, 1-33.

김봉국(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연구, ≪國語硏究≫ 150.

金鳳國(2002), 江原道 南部地域 方言의 音韻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국(2006), 경기도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 ≪語文硏究≫ 51.

金星奎(1988), 聲調의 再構方法, ≪국어국문학≫ 100, 9-19.

金星奎(1991), 聲調 律動의 再構,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金完鎭先生 回甲

紀念論叢≫, 民音社, 23-46.
金星奎(1994ㄱ), 中世國語의 聲調 變化에 대한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星奎(1994ㄴ), 尊經閣本 呂氏鄕約諺解의 聲調, ≪震檀學報≫ 77, 111-137.
김성규(1997), 성조의 변화, ≪國語史硏究≫, 國語史硏究會, 491-511.
김성규(1998), 중세국어 2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 유형, ≪國語學≫ 32, 21-47.
김성규(2002), 유동적 상성 어간의 발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1, 141-164.
김성규(2004), ≪계림유사≫와 15세기 국어의 성조 비교, ≪어문논집≫ 49, 민족어문학회, 145-182.
김성규(2005), 풀리지 않은 성조 문제 열 가지,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태학사, 101-113.
김성규(2006), 음장의 변화 방향, ≪李秉根先生退任記念 國語學論叢≫, 태학사, 267-290.
김성규(2009), 15세기 한국어 성조의 성격에 대하여, ≪國語學≫ 56, 3-31.
김성규(2011), 성조에 의한 어미의 분류: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口訣硏究≫ 27, 243-295.
김성규・정승철(2004),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세환(2005), 청송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國語硏究≫ 180.
김세환(2012ㄱ), 청송 지역어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세환(2012ㄴ), 청송지역어의 하강조에 대하여: 1음절 용언 어간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55.
金淑子(1989), 日本語와 韓國語의 聲調比較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숙자(1990), 일본어의 악센트 연구사, ≪언어학 연구사≫, 서울대 출판부, 195-213.
金永萬(1992), 韻素論, ≪國語學硏究百年史≫ 1, 一潮閣, 62-80.
金完鎭(1963),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63-99.
金完鎭(1973), ≪中世國語聲調의 硏究≫(國語文化硏究叢書 11), 國語文化硏究所.

金完鎭(1975), 音韻論的 誘因에 依한 形態素 重加에 대하여, ≪國語學≫ 3, 7-16.
김유범(2007), ≪중세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월인.
김정대(1998), 경남방언의 성격,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321-364.
김주원(1984),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현상, ≪人文硏究≫ 6, 31-56.
김주원(1991ㄱ),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 방법: 표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 ≪語學硏究≫ 27-3, 585-608.
김주원(1991ㄴ), 경상도방언의 高調의 본질과 중세국어 聲調와의 대응에 대하여, ≪언어학≫ 13, 75-93.
김주원(1994), 성조 연구의 성과와 전망, ≪人文科學≫ 10, 135-164.
김주원(1995), 중세 국어 성조와 경상도 방언 성조의 비교 연구: 「ᄆᆞᆺ노픈 소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언어≫ 20-2, 1-28.
김주원(2000), 영남 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語文學≫ 69, 91-115.
김차균(1979), 평측법과 성조, ≪論文集≫ 4-1, 忠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5-50.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김차균(1985), 중세 국어 성조와 방언 성조의 대응 관계(Ⅰ), ≪언어≫ 6, 1-22.
김차균(1988), 성조이론의 비판적 성찰, ≪애산학보≫ 6, 65-120.
김차균(1990), 일본 언어학계의 한국어 성조 연구사, ≪언어학 연구사≫, 서울대 출판부, 120-172.
김차균(1993), 창원 방언과 대구 방언 성조의 비교 분석, ≪論文集≫ 20-2,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181-355.
김차균(1994ㄱ), 대구 방언 성조 체계의 변천, ≪언어≫ 15,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101-366.
김차균(1994ㄴ), 대구 방언 풀이씨의 성조, ≪論文集≫ 21-1,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251-441.
김차균(1994ㄷ), 북청 방언과 대구 방언 성조 체계의 비교, ≪우리말의 연구: 외솔 권재선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우골탑, 767-798.

김차균・천기석(1974), 경북 칠곡 방언의 성조, ≪論文集≫ 1-1, 忠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27-49.

金　玄(2006), 中世國語 1音節 用言語幹의 音韻構造: ・/ㅡ 末音 語幹을 중심으로, ≪語文硏究≫ 130, 59-83.

南廣祐(1997), ≪敎學 古語辭典≫, 敎學社.

南豊鉉(2011), 古代韓國語의 謙讓法 助動詞 '白/숣'과 '內/아'의 發達, ≪口訣硏究≫ 26, 131-166.

대한민국 학술원(1993), ≪한국 언어 지도집≫, 성지문화사.

文孝根(1974), ≪韓國語 聲調의 分析的 硏究: 15世紀 聲調와 方言 聲調와의 對照≫, 世宗出版公社.

박부자(2011), 선어말어미 {숩} 이형태의 분포 변화, ≪口訣硏究≫ 26, 289-343.

박숙희(1999), 영일 지역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숙희(2008),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역락.

박지홍(1983), 경상도 방언의 하위 방언권 설정, ≪人文論叢≫ 24-1, 釜山大學校, 27-50.

방언연구회 편(2001), ≪方言學 事典≫, 태학사.

배주채(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白斗鉉(1982), 金陵地域語의 音韻論的 硏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白斗鉉(1983), 國語聲調의 文法的 識別機能, ≪言語硏究≫ 3, 187-204.

白斗鉉(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硏究≫(國語學叢書 19), 塔出版社.

백두현(1994), 경상방언의 통시적 연구 성과와 그 전망, ≪人文科學≫ 10, 289-222.

백두현(1997), 19세기 국어의 音韻史的 고찰: 母音論, ≪韓國文化≫ 20, 1-47.

服部四郎(1973), アクセント素は何か？ そしてその弁別敵特徴とは？, ≪言語と科学≫ 6, 東京言語硏究所, 1-61.

福井玲 외 4인(2000), ≪韓国語アクセント論叢≫, ICHEL Linguistic Studies 3,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硏究科附属文化交流硏究施設 東洋諸民族言語文化部門.

福井玲(2000), 16世紀朝鮮語傍点資料についての基礎的研究, ≪朝鮮文化研究≫ 7,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文学部朝鮮文化研究室, 167-188.
上野善道(1975), アクセント素の弁別敵特徴, ≪言語と科学≫ 4, 東京言語研究所, 23-84.
上野善道(1989), 日本語のアクセント, ≪日本語と日本語教育≫ 2, 明治書院, 178-205.
上野善道(2003ㄱ), アクセント記述の方法, ≪現代日本語講座≫ 2, 明治書院, 163-186.
上野善道(2003ㄴ), アクセントの体系と仕組み, ≪朝倉日本語講座≫ 3, 61-84.
小倉進平(1940), ≪增訂朝鮮語學史≫, 刀江書院.
宋 敏(1975), 十八世紀前期 韓國語의 母音體系, ≪聖心女大論文集≫ 6, 3-24.
송 민(1986), ≪전기근대국어 음운론 연구≫(國語學叢書 8), 塔出版社.
宋 敏(1992), 近代國語의 音韻論的 認識, ≪東洋學≫ 22, 249-261.
宋喆儀(1987),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的 考察, ≪國語學≫ 16, 325-360.
신승용(2000),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승용(2001), 통시적 변화에서 음소와 변이음, ≪順天鄕語文論集≫ 7, 351-366.
신승원(1990), 영풍 지역어의 조사자료, ≪嶺南語文學≫ 17, 121-149.
신승원(1991), 의성 지역어의 조사자료(Ⅰ), ≪嶺南語文學≫ 20, 233-296.
신승원(1992), 의성 지역어의 조사자료(Ⅱ), ≪嶺南語文學≫ 22, 115-177.
신승원(1995), 의성 지역어의 조사자료(Ⅲ), ≪嶺南語文學≫ 28, 71-134.
신승원(1996), 의성 지역어의 조사자료(Ⅳ): 지리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 ≪嶺南語文學≫ 29, 5-49.
신승원(1997), 의성지역어의 조사자료(Ⅴ): 초분절음소 표기를 중심으로, ≪嶺南語文學≫ 32, 109-131.
신승원(1998), 의성지역어의 조사자료(Ⅵ): 지리언어학적 고찰을 위한 기초작업, ≪

韓民族語文學≫ 33, 135-185.
신승원(2000),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분화 연구≫, 홍익출판사.
安秉禧(1992), ≪國語史 資料 硏究≫, 文學과 知性社.
安秉禧(2009), ≪國語史 文獻 硏究≫, 신구문화사.
오종갑(1999),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특성과 그 전개, ≪韓民族語文學≫ 35, 145-210.
오종갑(2000), 영남 하위 방언의 모음 음운 현상 대조: 포항, 상주, 산청, 양산 지역어를 중심으로, ≪한글≫ 250, 69-116.
유필재(2001ㄱ),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필재(2001ㄴ), 中世國語 聲調 硏究史, ≪울산어문논집≫ 15, 133-158.
李基文(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119-153.
李基文(1972), ≪國語史槪說≫(改訂版), 民衆書林.
李基文(1972/1977), ≪國語音韻史硏究≫, 塔出版社.
李基文(1998), ≪新訂版 國語史槪說≫, 태학사.
이기문・김진우・이상억(2004), ≪국어음운론≫(증보판), 학연사.
李基白(1969), 慶尙方言의 方言 區劃, ≪東西文化≫ 3, 183-217.
이문규(1997),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 ≪한글≫ 238, 33-65.
이문규(2002), 대구방언과 안동방언의 성조 비교 연구, ≪語文學≫ 77, 101-149.
이문규(2004), 안동 방언의 성조형과 성조 규칙, ≪언어과학연구≫ 30, 137-160.
이문규(2011), 국어 방언 성조의 성격과 성조 체계 기술의 기본 단위, ≪國語學≫ 60, 68-98.
李相揆(1998), 慶北方言의 성격,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291-320.
李相億(1990), 聲調,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128-138.
李相億(1991), 韻律音韻論에 입각한 音聲認識,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222-237.
이상억(2000), 음장(音長) 및 성조(聲調), ≪새국어생활≫ 10-1, 197-209.

이상억(2001), 국어 음운 현상과 관련된 제약들의 기능 부담량에 대한 연구,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7-1, 125-152.
이상억·이현희(1997), 현대 국어 용언 형태의 계량 언어학적 연구,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3, 203-222.
李崇寧(1978), 諺解 事業의 時代別 傾向에 대하여, ≪민족문화≫ 4, 민족문화추진회, 5-29.
李崇寧(1964), 十五世紀의 活用에서의 聲調의 考察, ≪亞細亞研究≫ 7-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心岳李崇寧全集≫ 4(2011), 117-197에 재수록].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李赫和(1994), 金陵方言의 聲調 研究, ≪國語研究≫ 119.
이호권(2008),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 83-114.
이호영(1987), 현대 한국어의 액센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이호영(1997), ≪국어운율론≫, 한국연구원.
林錫圭(1999), 榮州 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國語研究≫ 160.
임석규(2003), 동남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37-69.
임석규(2004), 동남방언 음운론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 ≪國語學≫ 43, 63-95.
林錫圭(2007), 慶北北部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혜진·신지영(2006),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57, 15-20.
田光鉉(1967), 十七世紀 國語의 研究: 특히 表記 音韻 形態의 問題點에 對하여, ≪國語研究≫ 19.
田光鉉(1978), 18世紀 前期 國語의 一考察, ≪語學≫ 13, 15-24.
田光鉉(1994), 音長·抑揚·악센트,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118-127.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7-54.
전정례(2005), ≪언어변화이론≫, 박이정.
전학석(1991),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회령, 경성, 함주 지방말의 음조를 중심으로≫,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鄭然粲(1972), 중세국어성조와 경상도 방언의 성조비교, ≪한글학회 50돌기념논문집≫, 29-46.
鄭然粲(1974), ≪慶尙道方言聲調硏究≫(國語學叢書 5), 國語學會.
鄭然粲(1976), ≪國語聲調에 관한 硏究≫, 一潮閣.
鄭然粲(1980), ≪韓國語音韻論≫, 開門社.
鄭然粲(1989), 十五世紀國語의 母音體系와 그것에 딸린 몇 가지 問題, ≪國語學≫ 18, 3-41.
정원수(1993), 영동 방언의 음운론, ≪言語硏究≫ 9, 175-201.
鄭仁浩(2006), ≪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比 硏究≫(國語學叢書 52), 太學社.
정 철(1997), 동남지역어의 하위방언구획 연구, ≪語文論叢≫ 31, 경북어문학회, 145-250.
早田輝洋(1999), ≪音調のタイポロジー≫, 大修館書店.
趙賢淑(1985), 慶北方言의 韻律體系硏究: 봉화지역을 중심으로, ≪國語硏究≫66.
車載銀(1999), ≪중세국어 성조론≫, 月印.
千時權(1965), 慶北地方의 方言區劃, ≪語文學≫ 13, 1-12.
崔桂英(2007), 15세기 국어 용언 활용형의 성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崔明玉(1980), ≪慶北 東海岸 方言硏究≫,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崔明玉(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出版部.
崔明玉(1985),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音韻論: 平北 義州地域語를 중심으로, ≪人文硏究≫ 7-4, 713-746.
崔明玉(1990), 동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분포, ≪제18회 전국학술대회논문집≫, 대한민국학술원, 67-88.

崔明玉(1994), 慶尙道의 方言區劃試論, ≪우리말의 연구: 외솔 권재선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우골탑, 861-892.
崔明玉(1998ㄱ), 現代國語의 聲調素體系, ≪國語學≫ 31, 23-52.
최명옥(1998ㄴ), 국어의 방언 구획, ≪새국어생활≫ 8-4, 5-29.
최명옥(1998ㄷ), 진양지역어와 김해지역어의 대조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367-398.
崔明玉(1999), 現代國語의 聲調型과 그 分布, ≪震檀學報≫ 88, 555-581.
최명옥(2003), 경남방언의 분화론, ≪배달말≫ 27-1, 153-180.
최명옥(2008), ≪현대 한국어의 공시 형태론: 경주지역어를 실례로≫, 서울대학교출판부.
최명옥・김주석(2007), ≪경주지역어 텍스트-1≫(전국 지역어 텍스트 총서 1), 역락.
최명옥・한성우(2001), 충남 방언 연구, ≪국어국문학≫ 129, 229-249.
최명옥 외 3인(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崔銓承(1981), 國語의 通時的 音聲變化와 共時的 構造, ≪先淸語文≫ 11-1, 499-523.
최중호(1998), 고성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동화 현상, ≪石堂論叢≫ 27, 71-118.
최한조(1994), 대구지역어의 표면성조형(음조형), ≪우리말의 연구: 외솔 권재선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우골탑, 927-937.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하시모도 만따로오(1973), 한국어 accent의 음운론: 특히 경상도 방언의 accent를 중심으로, ≪한글≫ 151, 173-204.
韓國精神文化硏究員 編(1989), ≪韓國方言資料集 Ⅶ≫(慶尙北道),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한글학회(1995), ≪(온면 천연색판) 우리말 큰사전≫ 2, 어문각.
한성우(2003), 의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許 雄(1955), 旁點 硏究: 慶尙道 方言 聲調와의 比較, ≪동방학지≫ 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7-194.
許　雄(1963), ≪中世 國語 硏究≫, 正音社.
許　雄(1968), ≪國語音韻學≫(改稿新版), 正音社.
후쿠이 레이(2006), 중세 한국어의 용언 활용과 성조의 관계, 제4회 규장각 콜로키엄 발표 자료.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rand, J.(1990), *Generative and Non-Linear Phonology*, London, 문양수 역(1994), ≪생성·비단선 음운론≫, 한신문화사.
Goldsmith, J. A.(1976), *Autosegmental Phonology*, Indiana University.
Goldsmith, J. A.(1990), *Autosegmental and metrical phonology*, B. Blackwell.
Hooper, J. 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Hyman, L. M.(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Jakobson·Fant·Halle(1952),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their Correlates*, The MIT Press.
James Milroy(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Blackwell, 정영인 외 역(1998), ≪언어변이와 변화≫, 太學社.
Ladd, D. R.(2008), *Intonational phonology*(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defoged, P.(1975), *A Course in Phonetics*(3r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defoged, P.(1993), *A Course in Phonetics*, HBJ.
Leben, W. R.(1973), Suprasegmental Phonology, PhD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cCawley, J. D.(1968), *The Phonological Component of a Grammar of Japanese*, Mouton.

Miller, R. A.(1989), Historical Pitch in Korean & Japanese, ≪알타이학보≫ 1, 75-141.

Pike, K. L.(1948), *Tone Language: A Technique for Determining the Number and Type of Pitch Contrasts in a Language, with Studies in Tonemic Substitution and Fusion*,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Ramsey, S. R.(1974), 咸南 慶尙 兩方言의 액센트 硏究, ≪國語學≫ 2, 105-132.

Ramsey, S. R.(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 國語學叢書 9, 塔出版社.

Ramsey, S. R.(1986), The Inflecting Stems of Proto-Korean, *Language Research* 22-2, 183-194.

Ramsey, S. R.(1991), Proto-Korean and the Origin of Korean Accent, *Studies i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edited by William G. Boltz and Michael C. Shapiro, Amsterdam: J. Benjamins Pub. Co.

Saussure, F. de.(1916), *Cours de Lingustique Générale*, Payot, 최승언 역(1990), ≪일반언어학 강의≫, 民音社.

Schane, S. A.(1973), *Generative Phonology*, Prentice-Hall, 朴鍾緖・李仁燮・白宗植 역(1978), ≪生成音韻論≫, 修書院.

Trubetzkoy(1939), *Grundzüge der phonologie*, TCLP Ⅶ, 한문희 역(1991), ≪음운학 원론≫, 民音社.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디지털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The Study on the Tonal Types of Conjugations in Gyeongbuk Dialect

Choi, Bora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classify the tonal phenomenon which is appearing in one-syllable stems consisted in Gyeongbuk dialect(GD), then compare that phenomenon with tone of Korean in 15th century(MK). It analyzes aspects of tone appearing in six areas, Gyeongju, Daegu, Mungyeong, Cheongsong, Uljin, and Pohang, and categorizes form of tone that could be realized in stem of one-syllable stems of Gyeongbuk dialect.

The tonal types of one-syllable stems in Middle Korean could be classified in five groups; Fixed L, Fixed H, Flexible L-H, Fixed R, Flexible R-L. The types of tone in stem of one-syllable stems appearing in Gyeongbuk dialect classified in five groups below; Fixed H, Flexible H-L, Fixed R, Flexible R-H, and F. The types which named as 'Flexible' have flexible tone according to followed ending. Among these, RH∽HH, subordinate classification of Flexible R-H and F are untypical patterns which are inferred from other formation of tone, or developed by abbreviation of syllables.

Uljin and Pohang subdialects have a constraint of tonal sequence; R should always

be followed L. This is a common feature of some subdialects which is near the East Sea. Cheongsong subdialect, which is not near the East Sea, also has same constraint of tonal sequence. From this, it could be noticed that Cheongsong, Uljin, and Pohang are in same subdialect area in aspect of tone.

Fixed H, Fixed R, and Flexible R-L(MK) with each of Fixed H, Fixed R, and Flexible R-H(GD). Fixed L(MK) corresponds with Flexible H-L(GD). The former of three types coincide with common rules of Middle Korean that known as 'the first H in Gyeongbuk dialect corresponds with preceding syllable of the first H in Middle Korean.' On the contrary, the latter of two types do not coincide with the rules. In the case of differing with common rules, the most influential reason could be prefinal ending '-더-'. This could be shown as the change of '-더-' which is realized as unique tone among strong ending before, transferred to similar course like other strong endings. Gyeongbuk dialect stems correspond with Flexible L-H(MK) have these several ways phenomenon of tone in practical usage of paradigm.

In case of the words deviated from typical corresponding, the reason of deviation could be from the inference of other tonal types or specific tone of ending. For example, while 'ᄇᆡ-(視)' and 'ᄋᆡ-(昔)' are shown as Fixed R in Middle Korean, they are appeared as F in Gyeongbuk. Originally, 'ᄇᆡ-(視)' and 'ᄋᆡ-(昔)' are noticed as including '-ᄋᆡ-'. All of morphemes of Gyeongbuk dialect which correspond with '쏘-' or 'ᄶᅧ-(燈)' are realized as Fixed H. This means that tone of '쏘-' or 'ᄶᅧ-(燈)' changed similar to Fixed H, inferred from the initial phoneme of stem from Fixed H is initial consonants or aspirate.

keywords : Gyeongbuk dialect, tone, Constraints of tonal sequence and Rules of tonal change, dialect geography, predicate